

연구보고서 : 2018-08

72-6420607-000099-01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방안

연구책임 송민경 (연구위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Gangwondo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강원도 내 결혼이민자는 6,768명(2016년 기준)이며 이중 여성은 6,251명으로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으며, 이들의 경제활동 경험은 지역사회 적응과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일할 욕구가 많은 청장년층이면서 초기적응을 완료한 장기 거주자가 많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만큼,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확보와 역량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기관들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사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실천 개입과 참여자들의 욕구와 감정 등을 섬세하게 파악해봄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검토와 도내 타 시·군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가 강원도 내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연구를 위해 협조해주신 담당 기관 대표 및 실무자, 여성결혼이민자, 연구 진행 방향과 내용 등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신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12월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박 기 남

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자활사업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근로복지연계(workfare) 프로그램임. 최근 도내 자활사업은 ‘참여자 수 급감’ 과 ‘참여자 역량 저하 현상’ 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의 주요 원인으로 고용노동부 취업우선정책시행으로 인한 전달체계 개편을 들고 있음. 또한 개별급여 도입 이후 조건불이행자가 급증했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 의 높은 급여와 쉬운 접근성 등이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음.
- 이에 강원도에서는 자활사업에 수급자 외 근로빈곤층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었음. 현재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일할 욕구가 많은 청장년층이면서, 초기적응을 완료한 장기 거주자가 많았음. 또한 이들은 높은 취업욕구와 기존에 다양한 취업경험과 창업에 대한 욕구를 가졌음. 하지만 부족한 인적·사회적 자본으로 실제 이행에는 어려움이 따랐음. 이런 측면에서 자활사업을 통한 상담, 기술지도 및 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때 여성결혼이민자 자활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현재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임. 이에 해당 지자체 및 관련 센터들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분리된 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자활사업 참여가능성을 제고해보기 위해, 관련 부서/기관들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조사기록하고자 했음. 또한 그 과정에서 관련 실천 개입과 참여자들의 욕구와 감정 등을 섬세하게 파악해봄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검토와 도내 타 시·군으로의 확대가능성을 제고해보고자 했음.

2. 연구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자활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및 자활사업 관련 기초 연구 등에 관한 학술지 및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통계 자료와 계획 등을 살펴보았음. 또한 관련 기관 등의 실태 및 사업 실적 파악과 이의 근거자료가 되는 사업 매뉴얼과 지침 등을 살펴보았음.

□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본 연구에서는 유관기관 간 사업단 구축 TF를 운영하면서 관련 회의와 FGI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업단 구축과정을 점검하고 기록하고자 했음. 또한 사업단 참여자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취업 경험 및 사업단 참여 관련 욕구, 기존 직무능력 및 교육경험, 가족상황 등을 파악하고자 했음.

□ 여성결혼이민자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센터들 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지자체의 유관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관리 역할 수행, Gateway 과정 운영 및 목표설정 에 따른 개입 필요,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및 사후단계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고자 했음.

3.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수집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활사업 관련 기초 연구 파악을 위해 관련 학술지와 연구보고서/간행물 등을 살펴보고, 여성결혼이민자 취·창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 및 정책 자료들을 검토하고, 강원도 내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음.

□ 심층면접 및 FGI

심층면접조사에는 여성결혼이민자(4명), 실무자 FGI에는 관련 센터 실무자(4명), 실무자 회의에는 관련 센터 실무자(5명)가 참여했음. 여성결혼이민자 면접내용은 본국 경험 및 한국생활 적응, 한국에서의 취업경험, 시범자활근로사업단 참여 계기 및 과정, 관련 서비스 경험 및 요구도 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음.

□ 전문가 자문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의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착수보고회, 최종자문회, 서면심의를 통해 연구방향 및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정책 제언 등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받았음.

4. 연구 결과

□ 본 연구는 2016년 본원에서 진행되었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증진 관련 연구의 제안 내용이었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에 대해, 행정부서에서 자활사업과의 연계/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음.

□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수행이 결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사업실행 지역 선정이었음. 연구원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역자활센터에서는 지역자활센터로 사업 수행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을 탐색했음. 그 결과 1차적으로 삼척시와 평창군이 사업실행 가능지역으로 논의되었음. 그 후 관련 현황 조사 및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참여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예측된 평창지역이 최종적으로 사업수행 지역으로 선정되었음.

□ 사업 아이템 관련해서는 본 사업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쌀국수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 도입이 고려되었음. 이는 사업설계과정과 대상자의 특성(베트남 출신 다수)을 고려한 결과, 프랜차이즈 도입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긍정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임.

□ 본 사업단 구축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대상자 확보와 센터 간의 역할설정이

있음. 초기 기획과정에서는 자활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연계하면서, 두 센터가 참여자들의 욕구와 필요도를 토대로 사업 아이템을 확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하지만 실제 진행과정에서 연계/협업이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음. 그것은 기존 사업 영역, 지역 내 기관 및 실무자 간의 관계 등과 연결되었음.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음.

- 앞으로 본 사업단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실제 현장에서 사업 진행 시, 연계/협력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됨.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대상자와 센터 사업의 안정적 지속 및 확대를 고려했을 때, 연계/협력은 필수적인 사안일 것임. 또한 도내 자활사업의 확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역할수행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현황 관련해서, 참여자들은 한국 입국 후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있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기본으로 부부교육, 다문화강사양성 교육 등의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금제도 관련 교육 등을 받기도 했음. 이러한 교육들이 이들의 한국생활 정착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 판단됨.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입국 년 수에 비해 한국어가 매우 미숙하기도 했음. 기본적으로 인적자원이 취약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능력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
- 또한 참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기존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주말 아르바이트 포함)와 일반 식당 등에서 일한 경우 모두 희망소득 정도, 혹은 더 많은 소득을 가졌음. 더불어 참여자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만큼, 자립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음. 흔히 한국남편이 여성결혼이민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한다고 생각되지만, 참여자들은 경제활동과 소비에서 모두 자립적인 모습을 보였음.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활동 및 개인적 삶에 대한 계획은 매우 모호한 상황이었음. 자영업에 대한 욕구를 가졌지만, 무엇을

할지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음.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음.

-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이유는 자녀양육 혹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담감 등이었음. 이로 인해 자활사업의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근무조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음. 흔히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들의 낮은 인적자본을 토대로 질 낮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근무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제 이들의 희망 근로조건이 일반 사람들의 희망 근로조건과 많이 다르지 않았음.
- 본 사업단은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작이라고 판단됨. 앞으로 이를 계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볼 수 있을 것이며, 본 사업단 구축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점검된다면, 도내 타 시군 사업단 출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5. 제언

- 제도적 측면 : 연계/협력체계 구축
 - (사전) 관련 센터들 간의 연계/협업체계 구축
 - (사전) 도 및 시군 시책화와 예산 확보
- 관리체계 측면 : 지자체 역할 강화
 - (사전) 유관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관리 역할 수행
- 서비스 운영 측면 : 실질적인 사업 참여 방안
 - (사전) 자활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설명회 개최
 - (사전) 여성결혼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사업 아이템 고려
 - (사전, 과정) Gateway 과정 운영 및 목표설정에 따른 개입 필수

- (사전, 과정) 생애주기를 고려한 근로시간 조정 및 배치
- (과정) 한국 사람과 협업체계 구축
- (과정) 사업 진행 시, 홍보 등을 통한 인식제고 및 파급력 강화
- (사후)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및 사후단계에 대한 계획 수립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나. 연구 목적	5
2. 연구 내용	6
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자활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나.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6
다. 여성결혼이민자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7
3. 연구 방법	7
가.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수집	7
나. 심층면접조사 및 FGI	7
다. 전문가자문	7
II. 관련 정책 및 사업 실행 현황	9
1.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11
가.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11
나. 중앙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16
다. 강원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20
2. 자활 사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26
가. 중앙정부의 자활 관련 정책/사업 현황	26
나. 강원도의 자활 관련 정책/사업 현황	29
III.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41
1. 분석자료 개요	43
2. 분석 결과	47
가.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기획	47

나. 가정생활과 경제활동의 어려움	52
다. 관련 교육 및 서비스 필요성	60
라.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경제활동 의지	63
마. 자활근로사업단 구축과정의 어려움	65
바. 사업 안정 및 확대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준비 필요	72
IV.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방안	79
1.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현황	81
2. 제언	83
참고문헌	89
부록. 심층면접질문	91
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심층면접 질문지	93

표 목차

<표 II-1> 강원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2016)	12
<표 II-2> 강원도 인구대비 결혼이민자 비율(2016)	13
<표 II-3> 강원도 시·군별 결혼이민자 본국 국적 현황(2016)	14
<표 II-4> 국적 취득자의 국적 취득 경과 기간(2016)	15
<표 II-5> 국적 미취득자 체류기간(2016)	15
<표 II-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18)	18
<표 II-7> 강원도 결혼이민여성 인턴제(2018)	21
<표 II-8> 강원도 결혼이민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추진계획(2018)	21
<표 II-9> 2017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영역 지역별 이용현황	23
<표 II-10> 조건부수급자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개선 방안(안)	28
<표 II-11> 자활근로 유형	29
<표 II-12> 전국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6)	30
<표 II-13> 강원도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6)	31
<표 II-14> 강원도 차상위자활 수급자 현황(2016)	32
<표 II-15> 강원도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판정유형별 수급자수(일반)	33
<표 II-16> 기초생활수급자 구분별, 성별 수급자 수(2018)	34
<표 II-17>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별 수급자 수(2018)	34
<표 II-18> 시·도별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 수(2016)	35
<표 II-19> 시·도별 맞춤형 급여별 수급가구 및 수급가구 수(2016)	36
<표 II-20> 강원도 자활 관련 사업(2018)	36
<표 II-21> 강원도 자활사업 참여 현황	38
<표 II-22>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1인 평균 자활사업 운영현황	39
<표 III-1> 심층면접 참여 여성결혼이민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45
<표 III-2> 심층면접 참여 실무자 및 기업대표 등의 기본 정보	45
<표 III-3>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구성	46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자활사업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근로복지연계(workfare) 프로그램이다. 최근 도내 자활사업은 ‘참여자 수 급감’ 과 ‘참여자 역량 저하 현상’ 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고용노동부 취업우선정책시행(고용지원센터 우선 의뢰 등)으로 인한 전달체계 개편을 들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7; 이문국 외, 2017)¹⁾.

실제 해당 사업 실시 이후, 근로미약자 및 사전단계 부적응자 등처럼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또한 개별급여 도입(2015. 07) 이후 조건불이행자가 급증한 것도 자활사업 참여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고(관계부처합동, 2017)²⁾, 주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

1) 취업 우선 연계에 따른 이용자 회전문 현상(자활근로↔취성패), 중간 탈락자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등의 한계가 발생함. 취성패 사전단계 참여자의 60~70%가 사전단계 탈락·미취업 등으로 지자체 이관대상으로 분류되며 그중 56%만이 자활사업으로 재연계됨(관계부처합동, 2017).

2)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는 '14년 48천명에서 '16년 51천명으로 증가하여 자활급여 대상이 확대됨(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대비 조건부수급자 비율: 19.8%(14)→24%(16)). 그러나 자활 근로 참여 보상이 낮아 자활참여를 회피하고 비공식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조건불이행자 증가함. ('16년) 자활근로참여자 월 평균 급여 79만 3천원, 월 최대급여 93만6천원, 조건불이행자 추이: '14년 2,204명(4.57%)→'16년 7,348명(11.8%)(관계부처합동, 2017).

4 •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방안

는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의 높은 급여와 쉬운 접근성이 자활사업의 참여자를 흡수해서 도내 농촌지역의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감소했을 것이라고 예측되기도 했다. 이에 강원도 자활사업에 수급자 외 근로빈곤층의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인, 여성가장, 다문화 등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이문국 외, 2017).

이런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만큼(보건복지부, 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와 소득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자활사업 참여는 긍정적 측면을 다수 내포한다고 판단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교육과 사업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직업훈련, 취업지원, 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성화되었다. 결혼이민자 고용률은 (’12) 47.4%에서 (’15) 50.7%, (’16) 52.3%로 상승했다(여성가족부, 2018a).

하지만 여전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실제 노동시장에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미숙한 한국어 실력과 기술 부족, 본국과 다른 한국의 노동구조 및 노동시장 내의 차별(이남철·정지선, 2014), 자녀 양육으로 인한 근무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취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 가족은 한국인 배우자가 노령으로 근로를 하지 못할 때가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측되기도 한다(김복태·이승현, 2015). 이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개발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는 6천7백여 명 이상으로, 높은 취업욕구와 기존에 다양한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일할 욕구가 많은 청장년층이면서, 초기적응을 완료한 장기 거주자가 많다(송민경, 2016). 10년 이상 장기 정착비율은 증가(’12년 34%→’15년 48%)했고, 5년 미만 단기 정착비율은 감소(’12년 27%→’15년 16%)했다(여성가족부, 2018a).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창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기도 했다. 물론 본국에서 실제적인 자영업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적었다. 이들의 희망업종은 주로 음식점, 개인서비스업, 소매업 등이었다. 여성결혼이민

자들의 창업은 이들의 부족한 인적·사회적 자원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개인의 창업보다는 집합적으로 창업하고 사업체를 운영해보는 것이 안정적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활사업을 통해 상담, 기술지도 및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유인진·송영호, 2009).

여성결혼이민자 자활사업 참여와 관련해서, 현재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 및 관련 센터들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도 분리된 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2016년 본원에서 진행된 기존 연구(송민경, 2016)에서 지자체 및 관련 센터 간의 협업체제와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을 통한 여성결혼이민자 사업단 구축 제안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행정조직체계의 상황 등을 토대로, 복지사업 내에서의 연계/협력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자활사업 참여가능성을 제고해보기 위해, 관련 부서/기관들 간에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실제 자활근로사업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조사기록하고자 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관련 실천 개입과 참여자들의 욕구와 감정 등을 섬세하게 파악해봄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검토와 도내 타 시·군으로의 확대가능성을 제고해보고자 했다³⁾.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및 자활사업 관련 정책/사업, 유관기관간의 연계/협업체제 구축 상황 등을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자활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파악

3) 본 연구 기획단계에서는 참여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방법을 적용하고자 했음. 실행연구는 클라이언트가 역량강화를 위한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며 실천과 연구의 과정이 긴밀히 연결된 방법론으로 정립됨. 또한 이론 정립에 대한 객관성이나 결과보다 실천 개선에 관심을 둔 과정을 중시하는 연구임. 하지만 실제 연구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연구기간, 지역 센터 간의 협업 상황, 연구자의 진행상황 등)에 의해, 연구방법론에 변경이 있었고 그로 인한 결과들이 연구 분석 등에 일정 부분 녹아들어 있음을 밝힌다.

6 •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방안

- 중앙정부/강원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파악
- 중앙정부/강원도 자활사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파악

둘째,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을 위한 TF 구축/운영
-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관련 욕구 파악
- 기관 실무자 등과의 사업 진행사항 및 개선사항 파악

셋째,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활동 경험/요구도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 기관 실무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한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2. 연구 내용

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자활사업 관련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및 자활사업 관련 기초 연구 등에 관한 학술지 및 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통계 자료와 계획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기관 등의 실태 및 사업 실적 파악과 이의 근거자료가 되는 사업 매뉴얼과 지침 등을 살펴보았다.

나.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본 연구에서는 유관기관 간 사업단 구축 TF를 운영하면서 관련 회의와 FGI를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업단 구축과정을 점검하고 기록하고자 했다. 또한 사업단 참여자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함으로써, 이들의 취업경험 및 사업단 참여 관련 욕구, 기존 직무능력 및 교육경험, 가족상황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 여성결혼이민자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련 센터들 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지자체의 유관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관리 역할 수행, Gateway 과정 운영 및 목표설정에 따른 개입 필요,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및 사후단계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수집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활사업 관련 기초 연구 파악을 위해 관련 학술지와 연구보고서/간행물 등을 살펴보고, 여성결혼이민자 취·창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 및 정책 자료들을 검토하고, 강원도 내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나. 심층면접 및 FGI

심층면접조사에는 여성결혼이민자(4명), 실무자 FGI에는 관련 센터 실무자(4명), 실무자 회의에는 관련 센터 실무자(5명)가 참여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월 말부터 11월 초까지였고, 여성결혼이민자 면접내용은 1) 본국 경험 및 한국생활 적응 관련, 2) 한국에서의 취업경험, 3) 시범자활근로사업단 참여 계기 및 과정, 4) 관련 서비스 경험 및 요구도 관련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다. 전문가 자문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향 및 내용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세 번의 자문을 거쳤다. 1) 착수 보고회: 연구방향 및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관련 기관 센터자

8 •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방안

등 10명에게 자문을 받았다. 2) 최종 자문회: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 6명에게 연구 내용 및 방법, 정책 제언 등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받았다. 3) 서면 심의: 수정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3명에게 보고서 발간 등과 관련한 자문을 받았다.

II. 관련 정책 및 사업 실행 현황

1.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2. 자활 사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II

관련 정책 및 사업 실행 현황

1.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가.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2016년 기준 강원도 내 결혼이민자는 6,768명으로, 국적 미취득자(3,547명), 혼인귀화자(3,221명)으로 구성되었다(표 II-1).

이때 남성이 517명, 여성이 6,251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적 취득관련해서 미취득자 3,547명(52.4%), 혼인귀화자 3,221명(47.6%)으로, 국적 미취득자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체 결혼이민자 중 가장 많은 약 20.85%인 1,411명(국적 미취득자 647명, 혼인귀화자 764명)이 원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춘천시 1,087명(국적 미취득자 596명, 혼인귀화자 491명), 강릉시 683명(국적 미취득자 408명, 혼인귀화자 275명), 홍천군 441명(국적 미취득자 202명, 혼인귀화자 239명) 순으로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결혼이민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 II-1〉 강원도 시·군별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현황(2016)

단위: 명

구분	합계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			혼인귀화자(국적 취득)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소계	6,768	517	6,251	3,547	265	3,282	3,221	252	2,969
춘천시	1,087	126	961	596	79	517	491	47	444
원주시	1,411	160	1,251	647	77	570	764	83	681
강릉시	683	61	622	408	34	374	275	27	248
동해시	303	15	288	185	7	178	118	8	110
태백시	182	14	168	105	7	98	77	7	70
속초시	303	27	276	151	16	135	152	11	141
삼척시	299	16	283	185	4	181	114	12	102
홍천군	441	19	422	202	6	196	239	13	226
횡성군	299	15	284	130	7	123	169	8	161
영월군	219	10	209	127	5	122	92	5	87
평창군	231	10	221	118	5	113	113	5	108
정선군	270	15	255	134	6	128	136	9	127
철원군	256	7	249	148	3	145	108	4	104
화천군	125	1	124	68	0	68	57	1	56
양구군	171	4	167	106	2	104	65	2	63
인제군	178	5	173	87	1	86	91	4	87
고성군	163	7	156	67	3	64	96	4	92
양양군	147	5	142	83	3	80	64	2	62

자료: 행정자치부(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년 강원도의 전체 인구 대비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0.44%로 나타났다(표 II-2). 도내 시·군별 비중을 살펴볼 때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양구군(0.71%)으로 대부분이 여성결혼이민자(1.5%)였다. 양구군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정선군(전체 0.69%, 여성결혼이민자 비율 1.35%), 횡성군(전체 0.65%, 여성결혼이민자 비율 1.26%), 홍천군(전체 0.63%, 여성결혼이민자 비율 1.23%) 순이었다. 반면, 남성결혼이민자가 높게 분포된 지역은 원주시(0.1%)와 춘천시(0.09%), 속초시(0.07%)로 나타났다.

〈표 II-2〉 강원도 인구대비 결혼이민자 비율(2016)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총인구 (A)	결혼 이민자 (B)	B/A	총인구 (A)	결혼 이민자 (B)	B/A	총인구 (A)	결혼 이민자 (B)	B/A
소계	1,549,507	6,768	0.44	768,073	6,251	0.81	781,434	517	0.07
춘천시	277,997	1,087	0.39	141,023	961	0.68	136,974	126	0.09
원주시	332,995	1,411	0.42	167,448	1,251	0.75	165,547	160	0.10
강릉시	214,560	683	0.32	108,015	622	0.58	106,545	61	0.06
동해시	93,895	303	0.32	46,392	288	0.62	47,503	15	0.03
태백시	47,501	182	0.38	23,373	168	0.72	24,128	14	0.06
속초시	81,992	303	0.37	41,615	276	0.66	40,377	27	0.07
삼척시	70,839	299	0.42	34,839	283	0.81	36,000	16	0.03
홍천군	70,336	441	0.63	34,430	422	1.23	35,906	19	0.05
횡성군	45,777	299	0.65	22,517	284	1.26	23,260	15	0.06
영월군	40,216	219	0.54	19,525	209	1.07	20,691	10	0.05
평창군	43,500	231	0.53	21,296	221	1.04	22,204	10	0.05
정선군	39,197	270	0.69	18,944	255	1.35	20,253	15	0.07
철원군	48,799	256	0.52	22,828	249	1.09	25,971	7	0.03
화천군	27,020	125	0.46	11,847	124	1.05	15,173	1	0.00
양구군	24,089	171	0.71	11,153	167	1.50	12,936	4	0.03
인제군	33,255	178	0.54	15,235	173	1.14	18,020	5	0.03
고성군	30,060	163	0.54	14,079	156	1.11	15,981	7	0.04
양양군	27,479	147	0.53	13,514	142	1.05	13,965	5	0.04

자료: 행정자치부(2017), 「주민등록인구현황」,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년 기준 강원도의 시·군별 결혼이민자 본국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출신이 가장 많은 2,147명(31.7%)으로 나타났다(표 II-3). 중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는 베트남 2,119명(31.3%), 필리핀 778명(11.5%), 일본 477명(7%), 캄보디아 344명(5%) 순이었다. 국적별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살펴보면, 중국출신은 원주시(507명), 춘천시(386명), 강릉시(215명)와 같은 시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에도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기타 지역에도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일본, 미국, 러시아 출신의 경우에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았다.

〈표 II-3〉 강원도 시·군별 결혼이민자 본국 국적 현황(2016)

단위: 명

구 분	합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미국	몽골	대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기타
합 계	6,768	2,147	2,119	778	477	344	105	102	59	98	57	11	471
춘천시	1,087	386	272	106	80	79	11	40	14	16	8	2	73
원주시	1,411	507	390	159	68	33	28	24	22	43	5	6	126
강릉시	683	215	232	78	34	37	14	15	9	9	36		4
동해시	303	101	112	27	13	12	7	10	5	7	8	1	
태백시	182	44	70	24	10	16	5			4			9
속초시	303	130	68	34	28	10	1			7			25
삼척시	299	58	152	33	28	14	2	6		3			3
홍천군	441	132	142	51	37	33	16	2		2			26
횡성군	299	65	109	36	16	25	1	5	4	3			35
영월군	219	55	87	34	17	9	1		2	2			12
평창군	231	63	90	25	19	12	6						16
정선군	270	88	80	35	9	27	2		1				28
철원군	256	79	91	19	26	5	1			2			33
화천군	125	38	24	18	15	13	1						16
양구군	171	39	44	20	36	7	6		1			2	16
인제군	178	60	59	26	13	10	1		1				8
고성군	163	44	52	26	11	2	1						27
양양군	147	43	45	27	17		1						14

자료: 행정자치부(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년 기준 강원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적 취득자의 비율은 전국의 2%를 차지했다. 국적 취득자의 국적 취득 경과 기간을 살펴보면(표 II-4), 전국 다문화가정의 국적 취득자의 취득 경과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10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강원도 37.1%, 전체 45.1%), 10년 이상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강원도 21.9%, 전체 21.9%). 즉, 국적 취득 경과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거주자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강원도 59%, 전체 67%).

〈표 II-4〉 국적 취득자의 국적 취득 경과 기간(2016)

단위: 명

구분	전국		강원도	
	계		계	
소계	159,447		3,221	
1년 미만	8,030		243	
1년~2년 미만	10,173		267	
2년~3년 미만	11,064		219	
3년~4년 미만	11,691		330	
4년~5년 미만	11,652		261	
5년~10년 미만	71,844		1,196	
10년 이상	34,993		705	

자료: 행정자치부(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년 기준 강원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자의 비율은 전국의 2.2%를 차지했다. 이때 강원도와 전국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강원도 82%, 전체 92.5%). 국적 미취득자의 체류 기간을 살펴보면(표 II-4), 거주 기간이 5년~10년 미만인 미취득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강원도 36.2%, 전체 39.5%). 또한 국적 미취득자 역시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강원도 57.5%, 전체 58.7%).

〈표 II-5〉 국적 미취득자 체류 기간(2016)

단위: 명

구분	전국			강원도		
	계	남	여	계	남	여
소계	159,501	28,728	130,773	3,547	265	3,282
1년 미만	11,563	1,535	10,028	254	12	242
1년~2년 미만	11,098	1,518	9,580	270	15	255
2년~3년 미만	13,523	2,221	11,302	286	21	265
3년~4년 미만	14,918	2,207	12,711	359	15	344
4년~5년 미만	14,606	2,217	12,389	323	16	307
5년~10년 미만	62,966	11,765	51,201	1,283	117	1,166
10년 이상	30,649	7,242	23,407	756	68	688
미상	178	23	155	16	1	15

자료: 행정자치부(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나. 중앙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1)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년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 발표되었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관련해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라는 목표 하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라는 정책과제가 설정되었다.

비전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 사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정책 과제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가정폭력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②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③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④ 서비스 연계 활성화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립역량 강화 ②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②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③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④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 환경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②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③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④ 지역 환경 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 강화 ②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내실화

또한 세부적으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과 한국어교육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

① 자립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추진 및 내실화 (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 자립지원패키지: 결혼이민자가 미래설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어교육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어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업 및 사업 추진 체계 효율화
 - 양성평등한 관점 및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한국어 교재 개발 및 보완 추진

또한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기초교육 내실화,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 발굴·연계 및 직업훈련교육 강화,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②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기초교육 내실화(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취업기초 소양교육 강화,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새일센터 역량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적합 일자리 발굴·연계 및 직업훈련교육 강화(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기관 간(다문화가족지원센터-새일센터-고용센터) 연계를 통한 구직자 발굴 추진, 기업수요 맞춤형 새일센터 취·창업 훈련 개발 및 운영
 - 집단상담,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일자리 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결혼이민자 참여 지원
- 결혼이민자 강점 분야 창업 및 경영지원(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 창업 훈련, 경진대회, 자금지원,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창업서비스 제공

- 기업가 포럼 운영, 여성기업 확인 지원, 결혼이민자 기업의 공공구매 정보 접근성 제고
- 새일센터 내 창업매니저 배치로 창업서비스 연계 지원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취창업 지원(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개설 및 자조모임 지원, (예비)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창업 공간, 자금, 경영 지원 연계

2)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주요 취업지원 기관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8년 현재 지방비센터와 통합서비스운영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에 21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18개 시·군 모두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4개소가 지방비센터이다(여성가족부, 2018).

〈표 II-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2018)

단위: 개소 수

유형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7	29	9	7	9	4	5	5	1	30	18	12	14	14	21	23	19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일반형)	가형 나형	21 51	- 2	1 6	- -	2 -	- 3	- -	- -	6 3	- 6	- 4	2 5	5 5	0 12	0 5	0 5	33 5	1 1
통합서비스운영기관(확대형)	가형 나형	36 103	11 11	- 2	1 6	3 4	2 2	- 2	- 5	- 1	7 14	2 12	1 5	2 6	3 1	1 14	3 8	1 9	- -
지방비(통합센터 5개소 포함)		6	-	-	-	-	-	-	-	-	4	-	-	-	1	-	1	-	

자료: 여성가족부(2018),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국비 기준 가형 57개소, 나형 154개소(통합서비스 운영 센터 포함(152개소) / 신규센터 설치지역 확정 시 센터 수 변경 예정

관련 사업 지침에서는 센터 취업사업 관련해서, 사회통합 영역에서 취업기 초소양교육 진행, 구직자 발굴시 e새일시스템과 연계된 워크넷 등록 및 새일 센터로 적극 연계(10건 이상), 새일센터가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교육훈련을 개설할 때 적극 협조(교육과정 설계·모집 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 강화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결혼이민자 스스로 정착과정을 설계하고 관련서비스 탐색, 실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①미래설계 프로그램(미래찾기): 향후 한국생활 예측 및 서비스 점검, 현재 생활에 대한 점검 및 비전, 미래설계, ②관심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프로그램(길찾기): 당당한 학부모를 향한 길찾기, 괜찮은 일자리를 향한 길찾기, 폭넓은 사회활동을 향한 길찾기, ③정착지원 서비스 정보체계 탐색(지역정보알기):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 탐색)(여성가족부, 2018).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9년 전국에 72개소가 지정된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2017년 12월 기준 전국에 15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에는 8개 새일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는데, 영월, 정선, 양양, 삼척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자체 직영 사업소로,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취업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 지원 담당자(1명) 지정, 구직등록 및 취업 알선 기능을 수행하고, 취업·교육 의사가 있는 결혼이민자를 새일센터로 연계한다. 새일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

하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상담, 구인·구직 등록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실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된 새일센터 실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새일센터 ‘인턴십 지원’ 사업에서 ‘결혼이민여성 인턴’으로 전일제(30시간 이상, 월 157시간/월 1,182,210원 이상)와 시간제(30시간 미만)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3개월로 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인턴 채용 지원금(3개월 간 총 180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18).

다. 강원도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1) 강원도 『2018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강원도에서는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기초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임.

- 사업규모: 결혼이민여성인턴 9~10명
- 인턴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 근무조건: 전일제 근무(주당 26~30시간 이상)
- 지원금액: 1인 총액 300만원 한도 내,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인턴채용 기업 및 인턴자에게 지원. 1인 월 75만원(강릉)

〈표 II-7〉 강원도 결혼이민여성 인턴제(2018)

지자체	사업명	계획
원주시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사업규모 : 결혼이민여성인턴 4명 ·사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한 이민여성으로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구직희망자
강릉시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인턴운영 : 10명

자료: 강원도(2018), 「2018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양성과정〉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방과 후 아동 등에 대해 외국어지도와 다문화이해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농어촌 지역 등에서 외국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교육운영: 6월~8월 중(70~80시간)(한림성심대, 관동대학교)

·내용: 관광통역, 아동지도 학습법, 한국문화 이해, 교수법 등

·인원: 40명(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결혼이민자의 잠재적 능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에 기여하도록 함.

·직업상담(진로적성)을 통한 취업전략 수립, 맞춤형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다문화가족 취업능력 향상교육 실시

〈표 II-8〉 강원도 결혼이민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추진계획(2018)

지자체	사업명	계획
원주시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내용 : 운전면허 취득반 운영, ITQ 취득반 운영,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패키지 '라온학교' 운영
강릉시	결혼이민여성 직업훈련교육	·운전면허교육 : 30명(자동차학원 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 10명
동해시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추진 및 내실화	·운전면허교육 참여자 : 7명 ·네일아트교육 참여자 : 10명

지자체	사업명	계획
태백시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직업교육	·요양보호사 : 5명
속초시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 취득반 : 15명
홍천군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	·사업규모 : 60명, 6개반(운전면허증,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비즈공예, 농기계, 홈패션)
횡성군	운전면허 취득	·지원대상 : 횡성군 거주 결혼이민여성 중 운전면허시험 실기합격자 8명
영월군	자립지원 패키지 연계사업	·사업규모 : 회 10명, 월 10명, 연 100명 ·사업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사업규모 : - 운전면허취득지원: 연 16명 - 컴퓨터교육: 회 10명, 월 80명, 연 500명 - 뷰티아티 : 12명, 월 48명, 연 120명 - 외국어강사 양성교육 : 회 10명, 월 80명, 연 200명
평창군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규모 : 결혼이민자 20명 ·사업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결혼이민자
화천군	결혼이민자 미용사 자격증 운영	·미용사 자격증반 운영 ·이론 및 실기 교육
양구군	결혼이민여성 직업훈련교육	·결혼이민자 컴퓨터 자격증(ITQ)교실 ·결혼이민여성 직업훈련교육(바리스타)
인제군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8개 과정 55명, 22명 자격증 취득 및 합격 ·초등검정고시, 중등검정고시, 소형중장비 면허증, 한식조리기능사, 운전면허 취득, 컴퓨터 자격, 가정관리사 자격증, 미용사자격증
고성군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반 운영	·사업규모 : 여성결혼이민자 6명 -대상자 모집 및 사업 시행(연중)

자료: 강원도(2018), 「2018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추진 및 내실화>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여, 결혼이민자 스스로 정착과정을 설계하고, 관련서비스를 탐색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결혼이민자활용 제2외국어교육지원>

결혼이민자들에게 제2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제고와 관내 주민과의 유대감 향상 및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지원하고자 함.

결혼이민자활용 제2외국어교육지원(양구)

-결혼이민자 강사와 관내 제2외국어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 간의 언어교육 및 문화 교육

2) 강원도 다문화가족 취업 관련 사업

2017년 강원도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 관련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II-9>와 같다. 전체 연인원 3,558명 중 실인원은 495명(13.9%)이었으며, 취업기초소양교육 영역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실인원 187명, 연인원 대비 실인원 비중 5.7%)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취업처 연계 이용자가 143명, 워크넷연계 이용자가 32명, 새일센터 이용자가 22명, 고용센터 연계 이용자가 9명으로 집계되었다. 시·군별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홍천군 257명(51.9%)이었으며, 다음으로 인제군(70명, 14.1%), 정선군(48명, 9.7%), 철원군(42명, 8%) 순이었다.

<표 II-9> 2017년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영역 지역별 이용현황

(단위 : 시간, 명)

지역	합계*		취업기초소양교육		워크넷연계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강원	인제군	70	1,277	48	1,229	1	1
	정선군	48	159	20	89	-	-
	철원군	42	474	32	464	10	10
	태백시	21	434	14	427	-	-
	평창군	40	402	24	364	8	8
	홍천군	257	783	42	670	10	10
	횡성군	17	29	7	17	3	3
새일센터		고용센터연계		취업처연계		통합센터 실적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	-	-	-	21	47	-	-
21	21	-	-	7	49	-	-
-	-	-	-	-	-	-	-
-	-	-	-	7	7	-	-

-	-	8	30	-	-	-	-
-	-	1	1	102	102	-	-
1	1	-	-	6	8	-	-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2017 가족지원사업 연간실적보고서」.

주: * 나눔봉사단 소양교육, 나눔봉사단활동, 선택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음.

주: 도내 18개 센터 중 지방비로 운영되는 4개 센터와 2017년 기준 통합센터 7개 센터 제외

3)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창업 관련⁴⁾

<지역사회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젊은 연령층이라는 이점으로 인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 취업에 용이함을 가졌다. 이때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에 지역사회 일자리 여건은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수가 적은 만큼 기본적으로 인력수요에 대한 요구가 적었고, 이로 인해 취업교육을 받아도 일자리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노동시장 및 직군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적절한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어실력 및 인적자원에 대한 고려 필요>

실제 취업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와 함께 그와 부합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강원도의 경우 전국과 비교했을 때 관련 센터 등을 통한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한국어실력이 낮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입국 초기에 제조업 공장 등으로 일하러 간 경우에는 기초교육 등이 부족해서, 시간이 지나도 일자리에 대한 여건이 나아지지 않기도 했다.

<일자리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 존재>

도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서비스종사자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4) 본 보고서의 전 단계 연구(송민경, 2016)의 해당 내용을 간략히 정리함

이는 강원도 일자리 상황과 이들이 가진 인적자원 등을 토대로 한 결과로 판단되며, 이들은 본국에서도 서비스종사자로 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괜찮은 일자리’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와 컴퓨터를 배우고, 관련 취업교육 등을 받았다. 물론 경우에 따라 취업교육을 받다가 탈락하기도 하고, 취업 준비에 소극적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취업을 해도 이직이 잦고 단시간 내에 그만두기도 했으며, 지속적으로 일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

<창업에 대한 욕구 존재>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관련해서, 강원도 내에서도 창업에 대한 욕구가 소수 존재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취업교육 이수 후 배운 기술 등을 살려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기존 취업경험 등을 통해서 자신들끼리 일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직접 창업 등에 요구를 가졌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의 소극적 태도나 운영능력 부족, 초기 자본 부족 등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웠다.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업 저조 및 어려움>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조정되고 있는 관련 센터들 간의 연계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는 취업관련 사업은 대부분 취업기초소양교육에 치중되어 있었고, 새일센터·고용센터간의 연계는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전체 사업 중에서 취업 관련 비중이 줄어들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센터 모두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전환되었고, 8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새일센터에서 도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여성결혼이민자 주축 사회적기업 사례〉

다문화 사회적기업은 본국의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 통번역, 공연 등의 문화 예술 분야처럼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와 제과·제빵, 바리스타, 봉제 등의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이중 ‘피플앤컴’이라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주축으로 한 사회적기업은 은행 등 다양한 기관과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중고컴퓨터를 기증받아 컴퓨터 재활용, 제조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기부 받은 불용컴퓨터의 일부를 기부회사 이름으로 다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환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내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직원화합을 위해 친정국가 방문 프로그램과 제조립 컴퓨터를 직원들의 모국에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수행을 하고 있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이들의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근무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내부적으로 근무 시 직원들의 분위기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피플앤컴의 기업 운영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준비단계에서부터 기업의 비전수립과 경영 및 수익창출 등을 통한 자생력 제고에 대한 탄탄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때 사회적기업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경영진의 역량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업 아이টে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역할수행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야가 있는데, 이를 일반 한국인 직원들과의 협력적인 근무 체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2. 자활사업 관련 정책/사업 현황

가. 중앙정부의 자활 관련 정책/사업 현황

1)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2018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이 발표되었다. 계획에서는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이라는 추진방향 하에, ‘자활사업 확대’라는 세부과제가 수립되었고, 그 안에는 조건부수급자 취업우선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근로빈곤층 자활·취업 우선 지원제도 운영 협의체(복지부·고용부 국장급)’를 신설하고, 지자체·고용센터 담당자가 합동으로 욕구사정·근로역량 평가를 실시해서 적합한 프로그램(자활 또는 취업패)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 추진 방향

- (목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National Minimum (국민 최저선) 보장
- (추진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를 4대 방향으로 개선

① 빈곤 사각지대 해소	②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③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④ 빈곤 예방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전략1 빈곤사각지대 해소	전략2 보장수준 강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국민 최저선” 보장 (National Minimum)
전략3 빈곤 탈출	전략4 빈곤 예방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	▷“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목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National Minimum(국민 최저선) 보장			
↑			
구분		2016년	2020년
성과 지표	수급자 규모	163만명, 103만 가구 (인구 대비 3.2%)	252만명, 161만 가구 (인구 대비 4.8%)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차상위 계층 144만명	비수급 빈곤층 최소화
↑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			
<사각지대> 빈곤 사각지대 해소		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②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	

<보장> "국민 최저선" 보장	①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②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완화 ③ (교육급여) 교육 기회 보장 ④ (생계급여) 최저생활보장 강화
<탈빈곤> 빈곤 탈출의 사다리 복원	① 자활일자리 확대 ② '청년' 등 근로빈곤층 인센티브 확대
<예방> "제3차 사회안전망" 구축	① 차상위계층 대상 다층적 보호 강화 ② 복지대상 체계적 발굴 및 지원 확대
<이행 기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① 사후관리 강화 ② 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

<표 II-10> 조건부수급자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개선 방안(안)

구분	현행	개선
서비스 결정 절차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우선연계	·욕구 사정, 근로역량 평가 실시 →개인별 자립경로(IAP)와 자활지원계획(ISP) 수립
서비스 결정 기준	·취업준비도 35점 이하→자활사업 ·취업준비도 35점 이상→취성패	·자활지원계획(ISP)에 따라 취성패 또는 자활근로 연계
서비스 결정 주체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합동(지침) *실제 운영은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중심	·자치단체 및 고용센터 합의를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2018), 「제1차 기초생활보장기본계획(2018-2020)」.

2)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2018년 8월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추진방향은 ‘저소득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확충’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2019년 자활근로참여자의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80%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며, 자활장려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자활근로 참여자('18년 4.7만명)는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70%('18년 월 109만원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인상<'19년>

·생계급여 산정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자활장려금 지급
 *약 2만 명에게 월 최대 38.5만원 추가 지원 소득(월소득 139만원 가정)

3) 2018년 자활사업 안내 (1)

자활근로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으로 자활근로 유형은 크게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분류된다.

〈표 II-11〉 자활근로 유형

구분	사업비 지출한도	사업규모 (전체자활근로 참여인원의)	시·군·구 직접시행, 민간위탁
① 근로유지형	5% 이하	25% 미만	
업그레이드형	② 사회서비스형	20% 이하	75% 미만
	③ 인턴·도우미형	0~10% 이하	
	④ 시장진입형	30% 이하	

나. 강원도의 자활 관련 정책/사업 현황

1) 자활사업 대상자 관련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6년 기준으로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62,509명으로,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은 4.03%로 나타났다(표 II-12). 이는 전국 평균 수급률인 3.15%보다 높은 수준이며,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이었다. 도내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93.6%인 58,500명이 일반 수급자였으며, 시설수급자는 6.4%로 4,009명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국의 일반 수급자 비율이 94.4%, 시설수급자 비율이 5.6%인 것과 비교하면, 강원도의 시설수급자 비율이 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12〉 전국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6)

(단위 : 명, %)

구 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수급률
		수(명)	비율(%)	수(명)	비율(%)	
전국	1,630,614	1,539,539	94.4	91,075	5.6	3.15
서울특별시	267,023	255,226	95.6	11,797	4.4	2.69
부산광역시	149,528	143,911	96.2	5,617	3.8	4.27
대구광역시	107,763	102,030	94.7	5,733	5.3	4.34
인천광역시	100,301	95,767	95.5	4,534	4.5	3.41
광주광역시	69,420	66,295	95.5	3,125	4.5	4.72
대전광역시	54,490	51,440	94.4	3,050	5.6	3.60
울산광역시	18,776	17,687	94.2	1,089	5.8	1.60
세종시	4,286	3,741	87.3	545	12.7	1.76
경기도	263,841	248,944	94.4	14,897	5.6	2.07
강원도	62,509	58,500	93.6	4,009	6.4	4.03
충청북도	53,748	48,294	89.9	5,454	10.1	3.38
충청남도	62,677	57,896	92.4	4,781	7.6	2.99
전라북도	99,708	94,287	94.6	5,421	5.4	5.35
전라남도	83,850	77,831	92.8	6,019	7.2	4.40
경상북도	105,146	98,043	93.2	7,103	6.8	3.89
경상남도	104,213	98,229	94.3	5,984	5.7	3.09
제주도	23,335	21,418	91.8	1,917	8.2	3.64

자료: 국가통계포털(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국가통계포털(2018), 「인구동향조사」.

주: 수급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총인구 수 *100

강원도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표 II-13), 2016년 기준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속초시(수급률 5.70%, 수급자 수 4,662명, 수급가구 수 3,173가구)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수급률 5.28%의 양양군과 4.91%의 양구군이 높은 수급률을 보였다. 일반수급자는 춘천시(수급자 수 11,531명, 수급가구 수 7,581가구)와 원주시(수급자 수 10,267명, 수급가구 수 6,731가구)에 분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 수는 춘천시(67개소)와 강릉시(64개소)가 가장 많았으나, 시설수급자 수는 원주시(수급자 수 883명)와 춘천시(수급자 수 781명)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II-13〉 강원도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16)

(단위: 가구, 명, %)

구 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수	인 원	수급률	가구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가구수	인원
합 계	40,244	62,509	4.03	38,907	56,515	327	4,009	1,337	1,985
춘천시	7,676	12,455	4.44	7,581	11,531	67	781	95	143
원주시	7,065	11,630	3.44	6,731	10,267	55	883	334	480
강릉시	5,678	8,722	4.08	5,507	7,887	64	582	171	253
동해시	2,406	3,623	3.88	2,351	3,403	9	133	55	87
태백시	1,340	1,902	4.04	1,298	1,768	4	67	42	67
속초시	3,173	4,662	5.70	3,017	4,281	14	154	156	227
삼척시	2,253	3,343	4.80	2,139	3,093	7	78	114	172
홍천군	1,410	2,169	3.10	1,325	1,838	24	219	85	112
횡성군	1,054	1,596	3.47	1,009	1,419	13	86	45	91
영월군	990	1,443	3.60	974	1,301	9	118	16	24
평창군	944	1,378	3.18	926	1,277	9	69	18	32
정선군	1,003	1,423	3.68	982	1,289	7	102	21	32
철원군	1,303	1,926	4.01	1,257	1,795	9	62	46	69
화천군	630	1,047	3.99	579	816	15	158	51	73
양구군	778	1,178	4.91	756	1,086	4	64	22	28
인제군	731	1,219	3.73	700	1,007	4	165	31	47
고성군	887	1,355	4.50	861	1,199	7	119	26	37
양양군	923	1,438	5.28	914	1,258	6	169	9	11

자료: 강원도(2017). 「강원통계연보」.

강원도 시·군별 차상위자활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표 II-14), 2016년 기준 도내 차상위자활 수급자는 811명(수급가구 수 779가구)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강릉시(20.6%)에 가장 많은 수급권자가 분포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춘천시(수급권자 수 141명(17.4%), 수급가구 수 136가구), 고성군(수급권자 수 51명(6.3%), 수급가구 수 49가구) 순으로 수급권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강원도 차상위자활 수급자 현황(2016)

(단위: 명, 가구)

사업명	시군 구분	수급권자수	수급가구수
차상위자활	강원도	811	779
	춘천시	141	136
	원주시	48	47
	강릉시	167	161
	동해시	30	29
	태백시	39	36
	속초시	43	43
	삼척시	35	32
	홍천군	14	14
	횡성군	48	46
	영월군	30	30
	평창군	21	19
	정선군	34	34
	철원군	20	19
	화천군	18	16
	양구군	15	15
	인제군	24	23
	고성군	51	49
	양양군	33	30

자료: 공공데이터포털(2018).

주: 차상위자활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아닌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의 미취업자에게 자활공동체 사업, 자활근로사업의 기회를 주는 제도

강원도 내 시·군별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판정유형별 수급자 현황을 살펴 보면(표 II-15), 2018년 9월 기준 수급자 수 50,686명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는 20.2%로 전국 평균(22.0%)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었다. 이때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원주시(23.4%)였으며, 이 지역이 유일하게 전국 평균(22.0%)보다 높았다. 다른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정선군(12.1%)이었고, 다음으로 평창군(12.9%), 홍천군(13.5%) 순이었다.

〈표 II-15〉 강원도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 판정유형별 수급자수(일반)

(단위: 명)

구분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해당 없음
전국	288,723	1,006,016	17,979
강원도	10,216	39,845	625
춘천시	2277	7,886	284
원주시	2176	7,047	57
강릉시	1511	5,349	55
동해시	614	2,368	36
태백시	314	1,322	11
속초시	769	2,999	25
삼척시	573	2,227	30
홍천군	226	1,440	5
횡성군	225	1,088	16
영월군	243	902	12
평창군	146	975	8
정선군	132	962	-
철원군	264	1,312	6
화천군	104	633	8
양구군	165	784	30
인제군	166	721	18
고성군	150	867	6
양양군	161	963	18

자료: 공공데이터포털(2018).

주: 2018년 9월 기준

강원도 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는 전국의 3.9%인 49,606명으로, 전체 수급자 60,846명 중 8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중 평창군의 일반수급자는 강원도 전체 대비 2.4%인 1,213명이었다(표 II-16). 도내 일반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의 비율은 53.7%로 남성보다 다소 높았는데, 이는 전국 일반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 비율과 동일한 비율이었다. 강원도의 조건부수급자의 비율은 9.4%(전국 12.5%), 시설수급자의 비율은 6.9%(전국 5.7%), 특례수급자의 비율은 2.2%(전국 2.6%)로 집계되었다.

〈표 II-16〉 기초생활수급자 구분별·성별 수급자 수(2018)

(단위: 명)

구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기타수급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국	1,256,575		198,771		90,597		41,001		182	
	581,608	674,967	90,618	108,153	38,612	51,985	17,370	23,631	89	93
강원	49,606		5,721		4,181		1,338		-	
	22,976	26,630	2,735	2,986	1,691	2,490	572	766		
평창	1,213		33		75		5			
	577	636	17	16	24	51	2	3		

자료: 공공데이터포털(2018).

평창군의 연령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표 II-17), 18세 이하의 비율이 20.8%(27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70~79세(19.4%), 50~59세(14.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때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70세 이상의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되는 노인 비율이 32.8%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17〉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별 수급자 수(2018)

(단위: 명)

구분	18세 이하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평창	276	68	38	129	197	183	257	178

자료: 공공데이터포털(2018).

2016년 12월 기준 시도별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표 II-18), 전체 자활사업 대상자 중 강원 지역의 대상자는 59,320명으로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강원 지역의 자활사업 대상자 대비 참여비율은 2.9%(1,712명)로 전국 자활사업 참여비율(3.1%)에 비해 낮았다. 또한 강원 지역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비율은 1.7%(1,034명)로 전국 자활근로사업 참여비율(1.6%)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활사업 대상자 대비 차상위자활수급자의 비율은 1.4%(811명)로 전국 평균 비율(0.8%)보다 높았으며, 가장 높은 전남(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18〉 시도별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 수(2016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자활사업 대상자 ⁵⁾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자활 수급자 ⁶⁾
계	1,551,707	48,208	25,387	12,085
서울	256,257	11,061	4,783	1,010
부산	144,656	5,777	2,882	732
대구	102,405	3,097	1,492	359
인천	96,352	2,922	1,721	576
광주	66,933	3,348	1,661	642
대전	51,956	1,378	874	520
울산	17,845	502	287	153
세종	3,777	15	0	38
경기	250,843	5,416	2,630	1,917
강원	59,320	1,712	1,034	811
충북	48,733	991	595	440
충남	58,331	1,350	791	422
전북	95,571	3,234	1,830	1,272
전남	79,095	2,194	1,793	1,252
경북	98,831	2,676	1,384	775
경남	99,295	2,032	1,332	1,077
제주	21,507	503	298	89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년 12월 기준 시도별 맞춤형 급여별 수급가구 현황을 살펴보면(표 II-19), 강원 지역은 전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4.1%(32,917명), 주거급여 4.0%(35,264명), 의료급여 4.0%(52,156명), 교육급여 3.4%(12,539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급여별로는 전국 합계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순이었다. 수급가구 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모두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많았으며, 수급자 수는 주거급여의

- 5) 자활사업 대상자: (1)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2)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가 제외된 자 중에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3)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를 지원 받는 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원, (4)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의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 (5)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자(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6) 시설 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수
- 6)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수급 인정을 받은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

경우 11번째, 교육급여의 경우는 1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9〉 시도별 맞춤형 급여별 수급가구 및 수급가구 수(2016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수급가구 수		수급자 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서울	135,225	146,976	218,480	58,240
부산	80,345	87,570	127,671	29,182
대구	52,659	57,354	90,082	23,843
인천	46,184	51,442	80,729	24,913
광주	29,659	33,535	57,986	17,195
대전	25,114	27,695	44,537	13,325
울산	10,064	11,129	15,596	3,438
세종	1,911	2,056	3,168	948
경기	125,069	138,266	199,829	67,335
강원	32,917	35,264	52,156	12,539
충북	26,445	28,568	41,538	11,553
충남	31,749	33,779	50,074	14,184
전북	47,916	51,770	82,129	23,656
전남	42,849	46,157	68,669	18,080
경북	56,138	59,927	86,742	20,818
경남	54,267	57,671	82,286	24,597
제주	10,064	11,197	18,108	6,216
합계	808,575	880,356	1,319,780	370,062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강원도 2018년 자활 관련 사업

2018년 기준 강원도 자활 관련 사업 11개를 정리하면 <표 II-20>과 같다. 시행주체는 강원도광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4개와 나머지는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시도 지역 주체의 사업이다.

〈표 II-20〉 강원도 자활 관련 사업(2018년 기준)

사업명	사업내용	시행주체
지역자활센터 역량강화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직무능력향상교육 ·조직활성화 및 회계교육, 센터운영능력강화 지원, ·자활사업단지지원전문가 그룹 형성과 자활포럼 개최	강원도 광역자활 센터
자활단체 사업활성화 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대상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멤버십 트레이닝 및 자활유공자 포상수여 진행	강원도 광역자활 센터

강원자활 상품박람회 지원	·박람회 및 자활장터 운영, ·상품 품평회와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등	강원도 광역자활 센터
자활근로 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자립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탈빈곤 지원	18개 시·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지원	17개 시·군
자활사례관리	·초기상담 및 참여자 선정, 관리 등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지속 추진	3개소 (춘천, 강릉, 삼척)
광역자활센터 운영	·시·군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광역단위 공동사업 추진,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	강원도 광역자활 센터
희망키움통장사업 I 지원	·근로능력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5만원, 10만원에 대한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자산형성 및 탈수급 지원	18개 시·군
내일키움통장 지원	·근로능력있는 빈곤층에게 탈수급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위한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적립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 대비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18개 시·군
희망키움통장사업 II 지원	·근로능력있는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개인 적립금(매월 10만원) 1:1 매칭금 지원	18개 시·군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34세) 생계수급자 중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 저축액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매칭 지원(탈생계수급 시 지원)	18개 시·군

자료: 강원도청 내부자료

2018년 기준 강원도 도내에는 광역자활센터 1개소와 지역자활센터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표 II-21). 이중 지역자활센터는 도농복합형 6개소, 농촌형 11개소로 분류되며, 규모에 따라 확대형 3개소(강릉, 춘천, 원주), 표준형 9개소(동해, 삼척, 속초반야, 고성, 양양, 정선, 태백, 횡성, 철원), 기본형 5개소(영월, 인제, 평창, 홍천, 화천)로 구분된다.

〈표 II-21〉 강원도 자활사업 참여 현황

시·군·별	설치 여부	사업 내용
계	17	
춘천시	설치	편의점, 카페, 음식점, 전자부품 조립, 북어손질, 사례관리 등
원주시	설치	허브작물재배, 재활용품수선, 장애인생산물 배송 등
강릉시	설치	양계사육, 한과제조, 원목가구제작, 편의점, 음식점 등
동해시	설치	건물준공청소, 카페, 편의점, 청소용역, 차류재배 등
태백시	설치	건어물채제작, 지역기념품판매, 정부양곡배송, 피부케어 등
속초시	설치	세탁, 저소득층간병, 농작물재배, 식품제조 등
삼척시	설치	보호자 없는 병실간병, 편의점, 관광시설관리, 천연조미료 제작 등
홍천군	설치	황태가공, 건강즙제조, 찜빵제조, 저소득층 등 양곡배송 등
횡성군	설치	스팀세차장, 재활용선별장, 대량세탁, 소핑백 가공 등
영월군	설치	도시락 제작, 도시락 및 양곡배송, 한복대여, 음식점 등
평창군	설치	도시락 식자재 납품 및 배송, 코인빨래방, 음식점 등
정선군	설치	찜빵제조, 휴게음식점, 계절별미판매, 재활용품선별 등
철원군	설치	정부양곡배송, 카페, 누룽지 등 생산, 이동세탁 등 차량운영 등
화천군	설치	간병서비스, 공공시설 화장실청소, 흑염소가공판매 등
양구군	미설치	-
인제군	설치	유정란생산판매, 황태가공납품, 굴병이가루 판매 등
고성군	설치	한우 및 양계업, 친환경채소재배, 공원 등 시설물관리 등
양양군	설치	카페, 스팀페차, 도시락배달,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판매 등

자료: 강원도청 내부자료

3) 도내 지역자활센터별 자활사업 운영 현황

최근 4년간(2013~2016) 강원도 자활근로사업단 수는 161개(13년)→185개(16년)로 14.9% 증가했지만, 참여자 수는 1,532명(13년)→1,269명(16년)으로 17.2% 감소했다. 이러한 자활근로사업단 수의 증가는 기존 자활근로사업이 인력 중심의 5대 표준화 중심에서 소규모·다양화된 사업단 중심으로 재편된 결과이다. 2016년 기준 사업단 유형은 사회서비스형(57.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장진입형(22.2%), 인턴도우미/근로유지형(12.4%), 게이트웨이(8.1%)로 나타났다. 이때 다른 지역에 비해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서 시장진입형 사업단/외식이나 기타서비스업 등의 소규모 사업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강원도광역자활센터, 2016).

또한 2016년 기준 도내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1인 평균 자활사업체 수는 3.1개소, 평균 참여자 수는 17.9명이었다. 평균 자활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지역

은 동해였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삼척, 원주, 춘천, 철원, 평창, 화천, 횡성이 모두 2개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에서 춘천은 평균 참여자 수가 4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강원도광역자활센터, 2016).

〈표 II-22〉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1인 평균 자활사업 운영현황

(단위: 명, 개)

구분	평균 참여자 수	평균 자활 사업체 수	구분	평균 참여자 수	평균 자활 사업체 수
강릉	18	3	정선	10	3
고성	14	4	춘천	40	2
동해	20	6	철원	10	2
삼척	16	2	태백	18	4
속초반야	19	4	평창	10	2
양양	20	3	홍천	35	5
영월	15	3	화천	10	2
원주	16	2	횡성	20	2
인제	15	3	전체평균	17.9	3.1

자료: 강원도광역자활센터, 2016, 『2016년 강원도 자활사업현황 보고서』

III.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1. 분석자료 개요
2. 분석 결과

Ⅲ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1. 분석자료 개요

연구 일정	진행 내용
2017. 10~11	사업 및 연구 진행 가능 여부 탐색(강원도-광역자활센터-연구원)
2018. 1	사업 수행 가능지역 탐색 (삼척/평창지역자활센터, 삼척시/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논의 및 협의)
	강원도 시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등 특수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 추진 제안→시책사업 선정, 사업비 확보
1. 24	연구 진행 관련 사전 모임 1차 : 삼척(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역자활센터, 연구원) 2차 : 평창(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역자활센터, 연구원)
	2. 28
5. 2	평창지역자활센터 담당자 미팅
5. 9~15	자활사업 참여자 섭외
2~6월	관련 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한 대상자 발굴, 사업화 논의 진행 →삼척은 대상자 발굴 어려움으로 사업 종료, 평창만 사업 진행
5. 2	평창지역자활센터 담당자 미팅
7. 4	강원도광역자활센터-평창지역자활센터 간 여성결혼이민자 중심 신규사업단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관련(1차) 업무협의
7. 13	강원도광역자활센터-평창지역자활센터 간 사업화 관련 아이템(2차) 및 지원예산 논의

44 •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방안

7. 24~25	강원광역시-평창지역자활센터 간 여성결혼이민자 중심 사업 아이템 개발 워크숍 진행(베트남 쌀국수 본사 3곳 방문 및 협의진행) *최종 선정된 (주)디디푸드의 '헬로 베트남 쌀국수' 아이템 사업화 진행하기로 합의, 강원드림뱅크(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000만원 대출)연계 협의, 강원광역시 사업화 지원(컨설팅 방식, 지원금액 1,000만원)
8. 6	평창 헬로 베트남 쌀국수 신규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여성결혼이민자 인터뷰
8. 9	평창지역자활센터 신규매장 임대차 계약 체결
8. 18	여성결혼이민자 인터뷰
8. 30	강원드림뱅크 현장실사 및 헬로 베트남 쌀국수 가맹 계약 체결 *강원광역시_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타 서류(강원드림뱅크) 보완 지원
9. 1~21	매장공사 진행(철거, 인테리어, 기타집기설치 등 매장전반)
9. 6	여성결혼이민자 인터뷰
9. 21	강원광역시-평창지역자활센터 간 강원드림뱅크 약정체결 (매장 임차 보증금 대출 건)
10. 1	강원도광역시자활센터-평창지역자활센터-연구원 간 중간점검
11. 9	여성결혼이민자 인터뷰
11. 14	헬로 베트남 쌀국수 신규 사업단 가오픈 *사업단명: 헬로베트남 쌀국수 사업단 *사업유형: 시장진입형(신규) *사업기간: 2018 9. 1~2021. 8. 31(3년)
12. 17	최종보고회의
12. 31	연구보고서 발간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가 확정되거나, 참여를 원하는(대상자 선정 심사 중) 여성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다. 이로 인해 자료수집 단계에서 4명에 대한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⁷⁾. 참여자들의 출신국은 모두 베트남이며, 한국입국 년 수는 6년~12년이였다. 이중 2명은 기존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이었고, 나머지 2명은 일반 식당에서 근로 중이였다.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참여자2를 제외하고는 20세 안팎이였다.

〈표 Ⅲ-1〉 심층면접 참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참여자	연령 (아내/ 남편)	출신국	학력	한국 입국	취업 여부	가족 사항	한국국적 취득 여부
참여자1	32세	베트남	중학교	2007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중	남편, 아들 2명(13살, 10살)	취득
	51세						
참여자2	44세		고등학교	2009년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중	남편, 아들(9살)	취득
	52세						
참여자3	25세	초등학교 중퇴	2013년	식당	남편, 아들(5살), 시아머니, 시아주버니	취득	
	45세						
참여자4	35	대학교	2011년	식당	남편	미취득 ⁸⁾	
	57						

〈표 Ⅲ-2〉 심층면접 참여 실무자 기본 정보

참여자	기관 유형
실무자1	광역자활센터
실무자2	평창지역자활센터

*사전모임, 착수보고회의 등의 참여자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음.
또한 중간점검 회의 시, 타 시군 실무자는 제외함.

- 7) 사업단에는 최종적으로 5명이 참여하였으나, 이중 1명은 인터뷰 진행을 원하지 않았음.
8)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4번 심사에서 탈락했음.

〈표 III-3〉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구성

여성 결혼 이민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 지역, 나이, 학력, 출신국, 한국 입국 년도 등 ◦가족적 배경 및 경제적 상황 등
	본국 경험 및 한국생활 적응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국 취업경험 및 경제적 상황 ◦한국 입국 계기 및 과정,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등
	취·창업 경험 및 욕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국 취업경험 및 한국에서의 취업경험 등 ◦일하는 동기 및 계기, 일의 의미, 가족들의 반응 등 ◦적합 직종 및 필요 지원, 취업정책에 대한 의견 등
	한국에서의 취업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에서의 취업경험 및 가족관계 변화, 희망 직업 등 ◦현재 수입 및 경제상황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계기 및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사업 참여 계기 및 업무 관련 욕구 ◦구직 시 원하는 조건, 여성결혼이민자 적합직종/아이템 등
	관련 서비스 경험 및 욕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입국 후 참여했던 교육/서비스, 취득 자격증 유무 ◦한국에서 도움 받고 싶은 것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입국 계기, 한국생활의 어려움 등

2. 분석 결과

가.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기획

개념	하위범주	핵심주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처 발굴이 시급하고 중요했음, 자활사업 참여자 축소를 타개할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고려하게 됨, 연구원과 광역센터에서 초기 준비 작업을 시작함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기획의 계기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기획
대상자 탐색과 발굴이 가능한 평창이 사업 수행가능지역으로 선정됨, 대상자 욕구 및 센터 의사 등을 반영해서 아이템 선정이 이루어짐, 지역사회에 외국 사람도 많고, 한국 사람도 쌀국수를 많이 알아서 장사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함	사업 실행 지역 및 아이템 선정	

1)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기획의 계기

현재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안은 바로 경제활동이다. 한국남편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차후 이들이 가계 주생계부양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일반적으로 평균소득과 자산이 많지 않은 다문화가족의 특성상 입국초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았다.

결혼이민자 쪽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 이민자가 남편분하고 한 10살 정도의 나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한 10년 20년 후에 남편이 만약에 이제 이제(연구자)
이분들이 가계 주생계부양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근로 능력이 있는 젊었을 때부터 이분들을 육성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맞는 거 같아요(연구자)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관련해서,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새일센터가 취업교육과 취업처 매칭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관련 교육을 받아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았고, 강원도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인적자원이 부족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흔히 여성결혼이민자는 식당이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상당부분 가지고 있었다.

2016년 본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증진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때 제안되었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에 대해 행정부서에서 자활사업과의 연계/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후 연구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 여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활센터 담당 공무원과 연구자가 만나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면서, 진행가능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취업시킬 때 어디로 매칭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동안 다문화센터나 새일센터에서 교육은 많이 시켰는데 교육하고 나서 취업할 곳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여성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일자리가 워낙 산업경제구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일반 도민들도 취업할 데가 없는데 더 취약계층인 인적자원이 부족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을 하는 건 일자리를 갖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알아보다가 이제 도에서 계장님이 담당 계장님이 매칭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가운데 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연구자)

자활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참여자 축소와 관련해서, 다양한 대상자 발굴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자활사업에 참여 가능한 적정 집단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저희 이제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자가 축소되면서 사실 이제 중앙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특수 취약계층 자립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특수 취약계층을 찾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용불량자 안에서도 자활 대상자를 찾았고 최근에는 지금 이제 새터민이나 어 예 새터민에서도 많이 찾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찾아가던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희도 이제 강원도 자료를 쭉 봤는데 어쨌든 통계상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강원도가 다른 데보다 많았어요 중자에서 보기에 또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실무자1)

그 후 실제 사업화 진행을 위해 강원도광역자활센터가 특수 취약계층 자립 지원사업을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제안하고, 이것이 선정되면서 사업비 확보와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사업화 진행과정을 실행연구로 진행해서, 연구보고서라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연구를 착수해야 되는 거지만 광역자활센터 입장에서는 이제 여성가족 연구 그니까 이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신사업을 할려면 창업비가 됐든 교육비가 됐든 뭘 비가 됐든 사업비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제 여성결혼이민자 특수 취약계층 자립 지원사업 제안을 시책 사업으로 드렸고, 시책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저희가 그 당시에 2,500만원 3,500인가 3,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가지고 사실은 여성결혼이민자만 하겠다라는 건 아니구요 네 뭐 그걸로만 도청에서 3,500을 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총 한 5개 시범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네 3,500만원을(실무자1)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획은 지자체-관련 센터-연구원이 라는 세 주체가 각각의 입장과 관점에서 달성 목표와 실행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사업진행이라는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낸 긍정적 사례라고 판단된다.

2) 사업 실행 지역 및 아이팀 선정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수행이 결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사업실행 지역 선정이었다. 연구원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역자활센터에서는 지역자활센터로 사업 수행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을 탐색했다. 그 결과 삼척시와 평창군이 사업실행 가능지역으로 논의되었다. 1월말에 두 지역에서 사전회의가 진행되고, 2월 말에 연구 착수보고회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주체(강원도·삼척·평창 자활사업 담당자, 시군 지역자활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광역자활센터와 연구원)가 만나서 실제 사업화를 위한 상황점검과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삼척시는 대상자만 발굴할 수 있다면 진행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삼척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업 아이팀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참여자만 발굴할 수 있다면 여성결혼이민자만으로도 사업단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여자 발굴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했고, 진행과정에서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척지역자활센터>

- 센터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업단 꾸리는 것을 생각했음.
- 삼척자활센터에서 기본적으로 3개 정도의 아이템과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임.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조사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이에 대해 센터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 대상자 선정기간이 좀 더 앞당겨져야 할 것 같음.
- 사업단 참여 가능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수가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할 정도의 인원이 된다고 하면, 여성결혼이민자만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지만, 그 수가 적다면 일반인들과의 사업단 구성을 고려해야 함.
- 기존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있는데, 일의 지속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음. 이미 수급자인 분들은 자활사업에 노출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만큼, 차상위계층에 대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임.

<삼척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자만 있다고 한다면, 자활센터와 연동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 또한 아이টে이 정해진 후 자격증 교육 등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항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 가능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에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취업으로 연동되기가 어려움. 이 부분을 자활사업과 잘 연동하고 싶음.

평창군의 경우에는 예산 확보와 사업 진행 아이টে이 없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대상자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때 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업단에 일반 대상자를 통합 배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사전회의 결과>

- 수급가구 8가정, 차상위 8가정(센터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음)
- 2017년에 센터에서 15명 정도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하였고, 올해도 진행예정임.
- 강원도광역자활에서 외식업체 탐색 중임.
- 사업 진행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 진행 아이টে이 발굴이 필요함. 이에 우선적으로 도의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예산 확보 필요함.

<평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평창군센터의 경우 올해 통합센터로 전환되었음. 사업 수행 시 여성결혼이민자가 1순위라고 하더라도, 일반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평창군의 경우 센터에 나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임. 하지만 현재는 식당이나 농공단지 쪽 외에는 갈 곳이 많이 없는 상황임.

<평창군청>

- 신규사업단 운영 시, 초기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됨.
또 사업이 추진된다면, 자활과 다문화 간에 연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함.

또한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는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해 진행되는 소득조사 기간과 대상자 미선정과 탈락, 사업 진행 순서, 지자체의 예산 조정 등에 관한 것이었다.

<강원도광역자활센터>

- 차상위계층의 소득조사를 하는데 1달 정도가 걸리고, 기존 인력이 그만두었을 때 새로 들어오는 시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가 중요함. 또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중간에 소득조사를 하고, 직권으로 탈락하기도 함.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지만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를 안내하고,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음. 대상자 선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음.
- 지역과 아이টে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배치할지 아니면 일반인들과의 통합배치가 필요한지 등을 검증해보아야 할 것 같음.
- 대상자가 선정되는 동안에 아이টে 발굴을 하면서 최대한 사업 진행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음.
- 추경과 관련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었으면 함.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평창군이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삼척시의 경우, 예산과 사업 아이টে은 있었지만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다. 반면 평창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센터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대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져 있었다.

이제 평창과 삼척에서 쪽 진행이 되었는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파악이 어려웠어요 이게 제가 철원에도 유선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장에서는 소득기준으로 뭐 대상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분의 소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나마 평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그때 지방 재정 일자리라 그러죠 공공근로 예 지역 맞춤형 일자리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역공동체맞춤형 일자리 뭐 그 사업을 하는 바람에 누구누구가 그래도 차상위 감이고 누가 수급자감인지에 대한 분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평창부터 이제 사업 추진을 하기로 이제 진행됐었죠(실무자1)

사업 아이টে 선정은 본 사업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쌀국수 음식 관련 프랜

차이즈 도입이 고려되었다. 이는 광역자활센터에서 사업설계과정과 여성결혼이민자 중 베트남 출신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였다. 실제 세 곳의 관련 가맹점을 운영하는 기업과의 협의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한 곳이 선정되었다. 또한 연구원에서 참여가 예상되는 평창군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사전에 만나서, 조사했을 때에도 쌀국수 음식점 등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지역에 외국 관광객과 노동자들이 많고, 한국 사람들도 쌀국수를 많이 먹는 편이라 영업이 잘 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여성분들 그 여러 여성결혼이민자분들 상담을 하셨는데 외식사업 그니까 다문화 외식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평창지역자활센터에서도 쌀국수 아이টে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럼 쌀국수 아이টে이 가지고 있는 뭐 미스 사이공부터 저기 어디까지 그래서 다양한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쌀국수 사업을 확인해보는 작업들을 24, 25일날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본사 세 곳을 방문을 하고 협의를 진행한 결과 주식회사 디디푸드가 갖고 있는 헬로 베트남 쌀국수 아이টে이 사업을 사업하기로 아이고 결정이 되었구요(실무자1)

아마 잘 될 거예요 진부에 외국 사람도 많고(참여자1)

그 사무실 있어요 그니까 무슨 사무실이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이 그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니까 여기 집 그냥 월세 세고 일하는 사람도 많이 오고 중국 사람 태국사람도 많이 오고(참여자1)

또 요즘 저희 베트남이 나라이라서 그거 여행 많이 관광하잖아요(참여자1)

그걸 쌀국수라는 음식도 여 한국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요(참여자1)

실제 진행과정에서 초기에 예측했던 것보다 사업 실행지역과 아이টে이 선정 시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각 주체들 간의 논의들이 절차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나. 가정생활과 경제활동의 어려움

개념	하위범주	핵심주제
남편이 장애가 있어 고정적인 일을 할 수 없음, 아픈 남편을 대신해서 일과 집안일을 모두 책임지고 있음, 장애가 있는 남편이 폭력성을 보이기도 함,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음, 친정과 시댁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기는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가족의 지지 부족	가정생활과 경제활동의 어려움

상황임, 평소 남편이 잘 해주고 필요한 것도 잘 사주는 편임, 남편과 시어머나가 자녀 양육을 도와줌		
남편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음,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 관계가 돈독하지 않음,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적음	친밀함의 부재	
본국에서 농사일, 서비스업 등의 일을 함, 베트남에서 미싱 일과 약국 운영을 함, 본국에서 단순 노무 일을 함, 본국에서 식당 매니저로 일했음, 한국에서 미싱 일, 김치공장 등에서 일했음, 식당에서 시간당 9천원을 받고 일하는데 너무 힘이 듦,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유지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함, 거주지역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 때문에 살고 있음,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만, 거주지역에는 없음, 화장품 매장이나 통역 일을 하고 싶는데 거주지역에 사람이 많이 없음	질 낮은 본국 직업과 한국 직업	
한국에서 4번 이사했음, 현재 일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인정함,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을 토대로 현실적인 사고를 함, 한국 입국 전에는 장사할 것을 생각했지만 입국 후 쉽지 않음을 인지함, 일하면서 가정과 관련한 힘들음을 조금 편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함, 가계소비에서 자녀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함,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있음	현실에 대한 인정과 자녀에 대한 투자	

1) 가족의 지지 부족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해도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였다.

저희 신랑이 장애인이에요 일 못해요(참여자1)
 그래서 보험비도 지원받고 월세도 지원받고 거다가 뭐지 수급비가(참여자1)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어야지 그런 거 받는 거지 제가 나가서 뭐 한 달에 이백만 원 뭐 이백오십만원 월급 벌어서 생활하면 그 돈 못 받는 거잖아요(참여자1)
 농사 집에 농사 없어요 다른 일 주고(참여자2)
 남편은 일도 잘 계속 잘 안 해주고 그렇게 가끔 일 하고 싶어 일하고 아니고 싶어 집에서(참여자2)

참여자1은 결혼할 때, 남편의 정신질환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였다. 남편은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힘들었지만, 한국에 ‘친정’이 없고, 남편만을 믿고 시작한 한국생활이었기에 그 힘들이가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저도 진짜 몰랐어 아예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괜찮 하다가 그때 막 정신이 막 없을 때는 막 부모님한테도 막 뭐라고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제가 병원도 들어가고 그니까(참여자1)

입원도 몇 번 했었어요 몇 번 했었어요 큰 사고도 났었어요(참여자1)

저 막 때렸어 그런 사고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 정신이 나갔을 때야 왜 그런 병 있잖아요 그니까 그때 한창 약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참여자1)

마음이 답답하고 또 자꾸 신경증 쌓이니까 뭔가 어떨 때 또 막 힘들었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요 어차피 여기 한국에 시집왔기 때문에 신랑만 믿고 살잖아요 이 신랑이 중심 있어야 되는데 이거 신랑이 아파 아파버리니까 이게 그 봐 모든 거 다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거 얼마나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뭐 내려놓을 수 없고 계속 들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참여자1)

주위에서는 아픈 남편을 대신해서 시부모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부모의 나이와 자산, 남편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지원받을 가능성은 적었다. 이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근처 살아요 근처 사는데 다른 사람 생각이 보기는 시댁에서 신랑이 그러니까 시댁에서 좀 돈을 주겠다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도 연세 계시고(참여자1)

연세 많고 지금은 신랑도 이제 다 컸잖아요 애기도 어린 나이도 아닌데 결혼까지 했는데 그거 알면서도 저한테 미안하면서도 뭐 돈 대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항상 마음은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고생하는 것도 알고 그냥 그렇다고 뭐 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애 애 학비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니까(참여자1)

한국남편은 집안일을 하거나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참여자들의 출신국인 베트남에서는 남성이 가사를 같이

하는 문화였던 만큼,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럴 때 대부분 그냥 포기하거나 수긍하는 편이었다.

자기 옷만 조금 자기 옷씩만 돌려요(참여자1)

집 안은 한 번도 청소기 안 돌려요 가끔씩 쓰레기통 버려주고 쓰레기 버리고(참여자1)

자기 몰라요 왜 안 가는지 제가 혼자 애들 무슨 잔치할 때 무슨 행사 있을 때 제가 가요 애들 뭐지 학교에서 운동장 있잖아요 저도 다 김밥 싸고 다 도시락 싸고 가요 신랑 가도 잠깐 왔다가 조금 보고 가버려요(참여자1)

저기 모 어떤 생각 몰랐어요 저기 밖에 일하고 먹고 놀아하고 저녁에 오고 저기 집에 아들 같이 남편 없어요(참여자2)

한국 남자는 베트남 남자는 저기 도와줘요 같이 해요 주방도 같이 하고 일 뭐 같이 하고 다 같이 하고 한국 남자하고 틀려요(참여자2)

다 안 도와주고 왕처럼 얘기 막 해주고 물도 갖다 주고 뭐 다 갖다 주고(참여자2)
여기 어려워요. 남편. 남자 성비 너무 높아요. 베트남 사람 남자 와이프 집에 와서 다 도와줘요. 근데 여기 남편 집에 와서 뭐해요(참여자4)

물론 남편이 아내의 요구에 귀기울여주고, 가사와 자녀양육을 같이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아내가 식당일로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자녀를 돌보기도 했다. 참여자3의 경우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만큼,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신랑 다 해줘요(참여자3)

공부한 거나 아니면 장사할 거나 그 핸드폰 사는 거나 옷이 화장품 같은 것도 자기 다 사줘요(참여자3)

빨래도 해주고 애기도 씻구 제가 일하기 와 갔다 와서 늦게 와 와서 신랑이 애기 씻어줘요 씻어주고 재워요(참여자3)

가사 및 자녀양육 등과 관련해서는 가족마다의 상황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분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자활사업 진행 시 사례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이라 판단된다.

2) 친밀함의 부재

여성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남편이 자녀양육에 거의 개입하지 않을 때, 일정부분 자녀와의 친밀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기도 했다. 참여자 스스로 자녀가 부모의 부재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나쁘지 않은데 그냥 아빠 어디 있는지 가도 안 물어봐요 몰라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냥 어떨 때는 가진 거 가 어디 갔는지 밤도 안 와 근데 아침에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냥 애들한테도 아빠 이렇게 잡지 않는 정도예요 애들도 그런 거 있어요 저희는 제가 애기들 놔두고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니까 애들도 그런 거 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어도 지가 알아서 지가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꼭 엄마 있어야 돼 꼭 아빠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참여자1)

하지만 그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본인 스스로도 쉬지 못하는 삶에 힘듦을 느꼈고, 심리적으로도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서운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니까 엄마랑 어디까지 가자 그러면 아 좋아 가야 되는데 아니야 한참 생각해야 돼 갈까 말까 이래(참여자1)
서운한 서운하지 그리고 어떤 때 뭐 식당 나가서 일하면서도 그런 가족 보이잖아요 그니까 생각하면 내가(참여자1)
그렇게 못 산다 하니까 좀 슬프지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또 애들 데려가고 바깥에 나가서 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참여자1)
그 뭐 내가 그런 정도의 그렇게 애들 일 포기하고 그렇게 생활하면은 또 돈이 없으면은 그런 데도 못 다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면 돈 있어야지(참여자1)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의 지지가 부족했던 만큼, 사회적지지 자원도 매우 빈약했다. 물론 본국 출신 결혼이민자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 관계를 벗어나면 지지체계를 찾기는 어려웠다. 참여자2의 경우 과거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선생님을 지지체계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주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전에 한국 와서 선생님 한 명 있어요 그렇게 가끔 얘기도 있고 지금 선생님 다른 일해고고 되게 많이 바빠서 가끔 일 년 일 년 이번 삼번 만나고 조금 얘기하고 있어요(참여자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에 경제적 상황도 매우 중요하지만, 남편과 자녀, 지인 간의 소통은 정서적 기반을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들이 한국생활을 함에 있어, 정서적 지지체계의 부재는 경제활동 및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 질 낮은 본국 직업과 한국 직업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입국 전 본국에서 했던 경제활동은 대부분 단순노무로 분류되는 일이었다. 부모의 농사일을 돕거나, 그물수선, 봉제, 공장에서 새우 껍질 벗기는 작업 등이었다. 물론 학생들에게 의류제작 관련 교육을 하거나, 약국을 경영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한국에서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본국에서 대학을 다닌 경우에도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매니저로 일했던 만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때는 베트남에서도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 못하고 중간에 하다가 그냥 일 시작했어요(참여자1)

그물에 잡는 고기 그 꼬미 이렇게 예 고기 잡고 오면 찢어지잖아요(참여자1)

그거 꼬매는 거 예예 그런 거 했었어요 음 그런 거 했었고 또 아는 삼촌네 집에서 또 식당에서 몇 년 했었고(참여자1)

베트남은 첨에 저기 열아홉살은 저기 미싱하고 학생들이 가르치고 15년 했는데(참여자2)

약국 파는 거 네 그렇게 배워하고 저기 5년 5년 약국 했어요(참여자2)

새우 만드는 회사 그리고 생선 같은 것도 네 마트 팔으는 새우 봉투 있잖아요 베트남 쓰는 거 그 회사 다녀요 껍질 벗기는 거(참여자3)

옛날에 베트남 식당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여기 식당일 해요 다른데 일 몰라요(참여자4)

참여자들은 한국에서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주말에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일자리도 적었지만, 취약한 인적 자본을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돈 조금만이라도 그냥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나머지 시간은 알바하잖아요(참여자1)
주말에 계속 나가서 하니까 그냥 주말에 그냥 한 나가서 하루 나가면 10만원 벌어요(참여자1)
식당 알바 근데 빠지는 날도 있지만 계속 하면 고기서도 그냥 뭐 80만원 90만원 나오고 어 그니까 음 생활이 되고 우리 신랑도 수급비 나오는 거는 자기 용돈밖에 안 되잖아요 40 50만원이니까(참여자1)

일자리 관련해서 거주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노인인구가 많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적고,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찾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 진부에 사람 나이 많아요(참여자4)
저 여기 진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일 때문에 여기서 살아요(참여자4)
회사 컴퓨터 안에 만들고 저는 베트남 회사 이렇게 많아요 이걸 안 힘들어요 그리고 월급 많이 벌어요 근데 여기 없어요 원래 수원하고 인천하고(참여자4)
이렇게 여기 없어요 그거는 우리 맨날 식당만 여기 다 식당이에요(참여자4)

기본적으로 참여자들은 본국에서 낮은 학력과 대부분 단순노무 등의 경험을 가졌고, 한국에서는 미숙한 한국어실력이라는 취약한 조건까지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 직업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

4) 현실에 대한 인정과 자녀에 대한 투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과 일 관련된 주위 환경들로 인해 힘들음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일정부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노력했다. 물론 체념해버리는 측면도 있지만,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있긴 있어도 뭐 원래 이런 데가 그러는데 뭐 그니까 나쁜 점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싫어서 나가는 거 그 정도 아니고 어차피 자활하는 자체가 다 어려운 사람 모아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 그런 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럴 때 다 내가 그냥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제 좀 나쁜 거 있긴 있죠 있어도 뭐 그냥(참여자1)

아 지금은 그래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옛날엔 제가 항상 인상 썼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계속 직장생활하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니까 주변 사람들에서 또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줘요 그런 걸 들으면서 또 내가 느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막 힘들어도 내가 노력 안 하면 계속 그렇잖아요 그런 그런 모습만 보이니까 저도 그냥 힘들어도 그냥 웃는 거지 뭐 그냥 어차피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아 뭐 내가 뭐해서 또 달라지는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지(참여자1)

이들의 체념과 현실에 대한 인정에는 자녀의 존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불신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생활 유지와 자녀양육이 불가능했다.

누구이라도 다 아픈 점 있고 다 안 좋은 점 있고 다 행복하고 다 잘 사는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니까 그러잖아요. 뭐 진짜 잘 되고 뭐 사람 좋고 그런 사람들 우리 외국에서 가서 결혼하지 않겠죠. 그니까 약간 좀 안 부축하는 부분 있어야지 뭐(참여자1)

그니까 그래 남편은 그냥 없는 거 있는다고 생각하고 애 애 보고 살아야지 뭐 어떡해 이것 생각도 엄마도 그렇게 나중에도 그렇게 말하고 지금도 엄마도 그것은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신랑이 그러니까 너무 미운거야(참여자1)

제 생각은 아들 있어서 괜찮아요. 아들 잘 해요 아빠 엄마 다같이 모여 다같이 아빠 엄마도 행복하고 싶은데 아들 다 여기 아들 잘 얘기해줘요(참여자2)

이에 자녀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고, 남편과 친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였다. 참여자들은 엄마로서 자녀교육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했다.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자녀 학원비를 지출하고,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있었다.

학원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선생님 말로 국어 수학 다 그래도 못하는 정도 아니고 하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영어가 제일 부족해요 그니까 이제 영어 영어 학원 보내주자 했어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학교 알아보니까 아이고 영어만 아니에요 사회 국어 뭐 네 가지 해 갖고 그거 지금 한 달 50만원 내잖아요 학비(참여자1)

아들 아들 이름으로 적금 주고서 나중 나중에 학교 가면(참여자2)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 힘들 엄마 안 힘 힘 안 들면 어떻게 해요(참여자2)

경우에 따라 한국남편의 나이를 고려해서, 아예 자녀출산을 포기하기도 했다. 자신보다 남편의 나이가 22살이나 많았던 참여자4는 몇 년 후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되면, 자녀부양과 생활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 하에 남편과 자녀를 낳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물론 자녀가 없어도 남편과의 삶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신랑 나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애기 키우기 힘들어요. 우리 신랑 지금 57세예요 애기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애기 생각 안 해요 지금 한국사람 오래 살아요. 50넘으면 애기 키우기 힘들어요. 억지로 지금 우리 신랑 3년 후 일 못가요. 일 못가요 돈 못 벌어요. 저 혼자 돈 벌어 이렇게 힘들어요. 애들 불쌍해요(참여자4)

여성결혼이민자를 설명하는 여러 조건 중에서 외국 출신이라는 기본 전제를 배제한다면, 이들은 아내이며 어머니이다. 이들의 가정생활에는 여느 한국 사람과 동일한 삶의 맥락과 생애주기적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관련 교육 및 서비스 필요성

개념	하위범주	핵심주제
한국에서 와서 적응을 위한 기초교육을 받았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과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받았음, 한국 거주 년 수에 비해 한국어실력이 낮은 편임, 한국 입국 후 한국어를 2~3개월만 배웠음,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지만, 현재는 일주일에 1일만 쉬고 있어서 배울 수 없음	기초교육 이수와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관련 교육 및 서비스의 필요성
나중에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뚜렷한 업종은 없음, 미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음, 저축은 10만 원 정도 하고 있음, 번 돈은 통장에 적금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동차 사려고 함, 남편 사후 국민연금과 보험금이 나오고, 젊은 자신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함	미래 삶에 대한 비구체성	

1) 기초교육 이수와 한국어교육의 필요성

참여자들은 한국 입국 후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기본적으로 이수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부부교육,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등의 취업 관련 교육도 이수하고 있었다. 더불어 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화 활동, 모국 방문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도 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금제도 관련 교육 등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들이 이들의 한국생활 정착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문화센터에서 부부교육 받고(참여자1)

다문화강사 어 그런 것도 몇 개월 배웠었고 또 뭐지 뭐 교육받았지 한국어도 몇 년(참여자1)

그런 것들도 배우고 또 자활센터에서 그 국민연금 대해서 뭐 그런 거 또 노인 연금 뭐 그런 연금 뭐 보험 뭐 그런 거도 배웠고 또 뭐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서 살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그런 교육도 받았고(참여자1)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입국 년 수에 비해 한국어가 매우 미숙하기도 했다. 한국 입국 후 한국어교육을 몇 달만 받은 후에는 알고 있는 어휘가 부족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게 고착화된 경우들이 있었다. 현재 일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교육 참여가 불가능했고, 또한 지역사회에 대학이나 관련 교육기관이 없어서 주말 교육 이수도 쉽지 않았다. 참여자4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게 되면 일주일에 5일만 근무를 하기에, 한국어교육 이수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시간 있어 공부하고 시간 없어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그 전에 저기 공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한국말 오래 했어 여기 배워 안 하고 깜빡해요(참여자2)

춘천 2개월 3개월 배우고 안 배워요(참여자4)

다 하고 또 한국말 잘 몰라도 같이 통화 못해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다고 안 가요(참여자4)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쌀국수 집 일주일에 두 번 놀아 그럼 한국말 배워요. 지금 시간 여기 일주일에 한번 놀아요(참여자4)

춘천 괜찮아요. 춘천, 강릉 이렇게 돼요. 밤에 대학교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대학교 없어요(참여자4)

기본적으로 인적자원이 취약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능력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물론 한국 가족과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익힌 한국어실력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자립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 향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⁹⁾.

9) 연구자가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보면, 강원도 군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다른

2) 미래 삶에 대한 비구체성

현재 참여자들은 매우 성실히 경제활동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앞으로의 경제활동 및 개인적 삶에 대한 계획은 매우 모호한 상황이었다. 자영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 아이템이나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다 귀찮아요 저기 이것도 잘 장사 잘 하고 장사해야 돼요(참여자2)
옷 수선도 하고 그렇게 좀(참여자2)
힘들어요 잘 몰라요 한국말도 잘 몰라 말도 못하고 어떻게 가게 해요(참여자2)
모르겠어요 저 그냥 일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생각 없어요(참여자3)
앞으로 뭐 해야 되는지 내일 뭐해야 되는지 머리 아파요(참여자3)

물론 남편과 나이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남편 사후에 국민연금과 보험금이 나온다는 인식을 가지기도 했고, 젊은 자신이 일할 수 있기에 생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어차피 여기 갑자기 신랑 죽으면 그래서 여기 계속 살아내요 그럼 우리 신랑 국민연금 이렇게 국민연금 60% 내요(참여자4)
혹시 일 때문에 사고 그거 보험금 나와요(참여자4)
근데 우리 지금 40 안돼요. 30? 지금 35살 돈 벌 수 있어요(참여자4)

여성결혼이민자가 현재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면, 미래 삶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고려한다면, 한국생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토대로 경제활동과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기정착한 상태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만큼, 관련 센터 교육 참여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서비스 등이 요구된다.

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보다 조금 낮다는 판단이 듦. 연구자는 기존 연구들을 진행 하면서, 서울 및 경기도, 타 시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인터뷰한 경험이 있음.

라.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경제활동 의지

개념	하위범주	핵심주제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벌면 자녀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음, 지역사회활동센터에서 일하고 싶으나 월급이 적다고 생각됨, 남편과 각자의 통장으로 적금을 하고, 세금은 남편이 아내의 장보는 비용을 지출함, 경제활동에 매우 적극적임, 스스로 벌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는 손이 아파서 식당일을 그만둠, 남편과 둘이 식당에서 일하면 한 달에 500만원 넘게 벌 수 있음	적극적 경제활동과 자립적 소비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경제활동 의지
자활근로사업단 일은 오후6시에 끝나기 때문에 자녀양육이 가능해서 계속 하고 싶음, 식당에서 일하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일이 늦게 끝나서 싫음,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돈은 많이 벌지만 힘이 들어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하는 것이 괜찮음,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를 원함, 대상자(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사람)의 특성을 반영해서 업무시간을 결정함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적극적 경제활동 의지

1) 적극적 경제활동과 자립적 소비

참여자2의 경우 자녀양육 때문에 야근이나 장시간 근무를 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희망소득으로 월 150만 원 정도를 원했다. 물론 일의 양이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여자에 따라 일반 식당에서 일주일에 6일 정도 일하고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

저 한 달에 백팔십만원 백오십만원 정도(참여자2)
 저기 동생들 저기 알바 하면 한 달 이십 이백만원 이백이십만원 정도(참여자2)
 지금은 괜찮아요 일 좀 안 했어요 일도 있고 저기 괜찮아요 일 없으면 힘들어요(참여자2)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일을 하는 경우, 대부분 돈 관리는 따로 하면서, 부부간 지출영역을 다르게 하고 있었다. 이때 남편의 소득과 지출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기존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주말 아르바이트 포함)와 일반 식당 등에서 일한 경우 모두 희망소득 정도의 소득을 가지거나 혹은 더 많은 소득을 가지기도 했다.

생활비는 저도 혼자 해요 남편 안하고 남편 남편은 집 월세 하고(참여자2)
 토요일 일요일은 알바해요(참여자2)

따로 따로 해요. 한국 돈 다 두면 얼마, 얼마 그 두 명 지금 당신 얼마 나 얼마 이렇게(참여자4)

제가 다 알아요. 어차피 우리 신랑 나쁜 사람 아니에요. 무슨 사요 이번 달 월급 얼마라고 다 나와요. 집세하고 세금하고 이거 다 까요. 얼마, 얼마 다 나와요(참여자4)

참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국에서부터 스스로 별어서 생활한 경우가 많았고, 한국에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본인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 농업에 종사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경우 아내가 건강보험 관련해서 직장가입자가 되기도 했는데, 직업을 구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기도 했다. 또한 남편과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야한다는 목표를 가지기도 했다.

일 안하면 못 살아요(참여자3)

신랑도 힘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별로 읽기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별어서도 힘들어요 신랑 별어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신랑 별어서 신랑 쓰고 제가 별어서 제가 쓰고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알아서 별어서 다 알아서 쓰고 지금까지도 그래요(참여자3)

근데 지금 제가 국적 받고 신랑이 그 건강 보험이 저 밑에 있어요(참여자3)

지금 집하나 돈 벌어 집 사야 돼요(참여자4)

참여자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만큼, 자립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다. 흔히 한국남편이 여성결혼이민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한다고 생각되지만, 참여자들은 경제활동과 소비에서 매우 자립적인 모습을 보였다.

2)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는 자녀양육 혹은 장시간 노동의 힘들 때문이었다¹⁰⁾.

저기 애기 때문에 여기 일 시간은 6시까지예요 애기 봐줘야 돼요 저기 다른 일은

10) 실제 참여자4는 두 번째 만났을 때, 장시간 일하는 것이 힘들고 손이 아파서 일을 그만 둔 상태였음.

저기 늦게 와서 애기 혼자 못 해요 그렇게 여기 계속 일하고 싶어요(참여자2)
 식당 힘들어요 시간도 늦게 하고(참여자2)
 다 여기 저 지금 식당 많이 일 못해요. 어차피 하루에 12시간 일해요(참여자4)
 우리 점심시간 서빙 끝나서 주방 도와줘서 설거지 하고 야채 준비하고 그런 15분
 조금 넘어요 커피 한잔. 그래도 다섯 시에 시작 또 계속 손님 와요. 9시에 끝나요
 청소하고 10시에 끝나요(참여자4)

이로 인해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는 자활사업의 근무조건을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는 기존에 강도 높은 일을 해본 경우, 급여가 많아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이었다.

돈 지금 괜찮게 안 해요 어차피 우리 지금 쌀국수 집 한 달 90만원(참여자4)
 일주일 40시간 일해요(참여자4)
 여기 그냥 9시부터 5시까지 해요. 9시부터 5시까지, 2시부터 10시까지 두 번. 그래서 90 나와요(참여자4)
 한 일주일에 두 번 놀아요. 이런 게 괜찮아요(참여자4)

흔히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들의 낮은 인적자본을 토대로, 질 낮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근무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인식되지만, 실제 이들의 희망 근로조건이 일반 사람들의 희망 근로조건과 많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¹⁾.

마. 자활근로사업단 구축과정의 어려움

개념	하위범주	핵심주제
여성 결혼이민자 취·창업 관련해서 센터들 간의 역할이 중첩될 수 있음, 연계협력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입장 차가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수익사업을 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음,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게 느껴질 수 있음, 참여자 선정과 센터 간의 연계 협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	사업영역 설정 및 연계의 어려움	자활근로 사업단 구축 과정의 어려움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많이 배울 것은 없음, 사업단 구성 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게 되면 진행상의 편의성이 있음.	프랜차이즈 도입의 이점과 단점	

11) 자활급여의 현실화는 자립의지가 높은 근로빈곤층을 자활 프로그램으로 유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통해 '일에 대한 태도'를 고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이문국·박호준, 2018)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목적설정이 필요함, 사업운영 시, 대상자의 특성을 토대로 한 운영계획이 이루어져야 함, 프랜차이즈 매장이라 하더라도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함이 추가되었으면 함, 현재 일과 새로 시작되는 쌀국수 사업단 일 모두 괜찮다고 생각함, 지역자활센터에서 3년 일하고, 다른 친구와 독립해서 쌀국수 가게를 하고 싶음, 나중에 독립해서 일하게 되면 음식 만드는 것 외에 나머지는 남편이 다 해줄 것임, 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 이미지 메이킹 교육도 필요함, 일할 때 외모를 단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목표 및 운영계획	
--	-----------------------	--

1) 사업영역 설정 및 연계의 어려움¹²⁾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기획이 이루어진 후, 실제 사업단 구축까지는 10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자활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의 의견 조율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평창군은 사업단 초기단계에서 예산과 사업 아이템은 없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사업수행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단 구축을 위한 대상자 점검과정에서 지역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미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논의가 나오기 전에 평창군 자활사업 참여자였던 여성결혼이민자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이탈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성결혼이민자가 이동한 운영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정부분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삼척하고 평창하고 해보니까 긴 텀이 롱 텀으로 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사업단을 만드는 게 길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니까 참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구 센터와 센터 사이에 어떻게 다리를 놓을 거냐가 너무 롱텀인 거예요(실무자1)

12) <자활사업 운영 TF 예시>

평창TF	평창지역자활센터	담당자
	평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사업 담당자
	평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담당자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자활사업 담당자
	강원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담당자
	강원도광역자활센터	담당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담당자	

<평창군청>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빠져 나간 경우도 있음. 급여 차이 때문이라고 보임.

최근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자활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수행주체 입장에서는 협력이 쉽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 입장에서는 두 센터가 연계해서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도를 고려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때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더욱이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취·창업교육 등에 대한 사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중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강원도 입장에서도 그렇고 평창군 입장에서도 어차피 동일 대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역자활도 당연히 취창업을 하시는 거니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다문화 센터에서도 아예 손을 떼지는 않으실 거예요 (중략) 그거는 아마 어느 시군에서 이런 세팅을 가져오더라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 같아요 그리고 철원 같은 경우도 지금 먼저 관심을 보이신 게 지역 자활에서 먼저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연구자)

도내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수를 통계수치로만 보면, 자활사업 대상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가능여부를 파악해보면 일할 수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수는 훨씬 적을 것이다. 이에 대한 고려와 참여자 입장을 토대로 한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프랜차이즈 도입의 이점과 단점

본 사업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수행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도입이 고려되었다. 사업설계과정과 대상자의 특성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도입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최근 자활사업에 타 분야의 프랜차이즈가 도입되는 것과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니까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쓰게 되는 경우는 이게 사업 초기에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니까(실무자1)

디자인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레시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경영하는 체계나 결제 체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프랜차이즈 시스템 안하고 그냥 만들잖아요 그냥 그냥 내가 만들면 디자인도 짜야 돼요 간판 하다못해 파란색으로 할 거야 빨강색으로 할 거야 고민하고 쌀국수 같은 쌀국순데 국 국 고기를 내야 되나 뭐 이런 거 해야 되고(실무자1)

왜냐면 주민 분들이 그니까 사회적 기업가들은 자기가 시도를 막 하잖아요 도전하죠 막 뭐 이런 것도 할까 저런 것도 할까 이렇게 하는데 자활 주민 분들은 실무자가 들들 볶지 않는 이상 자기가 나서서 뭐 혁신 아이টে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전하지 않으니까(실무자1)

하지만 이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축이 된 사업단으로서의 특색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다른 자활대상에 비해 청장년층이 많고, 근로의지와 욕구가 많은 편이다. 특히 쌀국수 관련 아이টে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스스로 재료 구입과 음식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업종이다. 실제 동일 지역 내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개인 창업으로 쌀국수 관련 음식점을 원활히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는 사업단이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많이 배울 필요 없다’ 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

근데 프랜차이즈 갖다 쓰면 좋을 거 같긴 한데 특성이 없어지는 거 같아서(연구자)
여기 3,900원 다 회사 보내요(참여자4)
우리 많이 배울 필요 없어요(참여자4)

자활사업의 중국의 목적이 대상자의 자립인 만큼, 이들이 사업 참여과정에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거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때 대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본국과 한국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만큼, 차후에 관련 자영업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기도 했다. 앞으로 참여자가 사업단 참여과정에서 시행착오 등을 거치면서, 스스로 성장하도록 하는 기회제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목표 및 운영계획

현재 참여자1은 기존 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이 구축되면 참여 사업단을 변경하거나, 양쪽 사업단을 병행하면서 일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어느 사업단에서 일해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사업단에 그리 큰 기대나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참여자1은 한국어도 잘 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매우 능숙한 편이었다. 쌀국수 사업단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가장 적절한 대상자라고 판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도입으로 인해, 셀프주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주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로 배치될 예정이었다.

저는 상관없어요 다 좋 괜찮아요 다 좋아요 여기도 괜찮아요 쌀국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쌀국수는 어차피 그거는 제가 나라 음식이잖아요 그니까 약간 좀 좋아할 수 있죠 여기보다는 근데 여기는(참여자1)

참여자2는 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할 것으로 보이나, 평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에도 같이 일하는 참여자1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달해주고 있었다. 이는 참여자2의 미숙한 한국어실력과 연관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자2는 나중에 직접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저기 손님 많이 와서 이게 뭐 얘기 얘기해줘도 싫어하니까 뭐 같이 놀아 같이 놀래 뭐 할 다른 사람 모 얘기 좀 줘 이렇게 싫어요 저기 저 와서 저기 뭐 얘기 아 사람 뭐해 뭐해 저기 저 안 들어요 저기 다른 사람 얘기해주세요 저기 저 안 들어요 저기 싫어하니까(참여자2)

참여자4는 사업단에서 3년 정도 일한 후에는 참여자3과 직접 쌀국수 관련 음식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4는 춘천에서 살다 평창으로 이주한 사례인데, 춘천에 쌀국수 관련 음식점이 여러 개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평창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업단을 제외하고 자신들이 독립해서 쌀국수 관련 음식점을 운영해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차후 독립해서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면, 자신은 음식 만드는 것만 신경 쓰면 현재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다른 사항들을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여기 3년 끝났어요. 우리 돈 할 수 있어 장사 돼요. 나라에서. 서로 만들어하고 지금 돈 얼마 나와요. 나라 3년 할 수 있어요. 여기 장사는(참여자4)
저하고 △△이하고 혹시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혹시 3년 나중에 장사하면 돼요(참여자4)
지하상가 한 개 있어요. 중앙시장에 한 개 있어요. 국민연금 옆에 있어요. 또 강원대 아니 강원대 뒤에 하나 더 있어요(참여자4)
우리 신랑 장사 알아서 괜찮아요. 우리 신랑 말은 당신 그냥 음식준비 하고 맛있게 준비하고 다른데 신경 쓰지 말아 다 해줘요(참여자4)

사업단에 참여할 것이라 예상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아직 자녀가 어린 경우가 많았다. 센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업단에 같이 배치되는 한국 사람들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근무시간을 조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 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 한 분을 더 할러구요 한 분 두 분 정도 하고 해서 왜냐면 애가 있더라고요 애가 있는 애가 몇 명 있어 뭐 ○○도 그렇고 △△이도 그렇고 애가 좀 어려워요(실무자2)
거기에 대한 부담은 안 줄려고 생 생각해 둔 게 한국 분들은 나이 연배가 좀 있어서 애가 다 컸잖아요 그래서 애 유치원 보내고 좀 일찍 퇴근을 시켜 줄려고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 하고 아니면 좀 다문화도 다 큰 애들이 있어요(실무자2)
□□이나 이런 애들은 그래서 야들을 보고 다 모여서 니들이 근퇴를 짜라 대신에 그 근무 시간 내까지만 하고 그니까 솔직히 수익이 나는 사업이에요 수익이 많이 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익이 많이 남고(실무자2)

초기 사업단 기획과정에서 올해까지의 목표는 사업단 구축과 운영까지 포함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업단 구축 일정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게이트웨이 과정 등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참여자의 욕구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없었다. 이에 2019년 사업단 운영계획에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사례관리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개인별 자립경로(IAP)와 자활지원계획(ISP)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게이트웨이 저희 이제 지침에서는 IAP를 상담하고 ISP를 수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 생각에 지금 고개 빠져서 구체화되지 않아 많은 거일수도 있어요(실무자1)
200만 원짜리 식당 일을 포기하고 여기 온 엄마들이 또 이걸 보는 눈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애랑 애랑 또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 생각에는 상담을 통해

서 19년도 운영계획 안에 교육부터 사례관리에 대한 19년도 운영계획이 나오면 제 생각에 어쨌든 운영계획이라는 게 그니까 사업계획하곤 다른 거죠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인 거고 운영계획은 이 참여자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교육 시키고 어떻게 사례관리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교육과 사례관리는 이제 사업단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은 직무기술일 거고 어떤 사람은 심성훈련일 거거든요(실무자1)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기 한국 사람들과 같은 전문 인력의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 전문 인력이 근태관리 및 발주 등의 일을 담당하는 만큼, 센터 실무자의 보조자로서 사업단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근태관리 발주(실무자1)

근데 이제 보통 자활에서 전문 인력이라는 이게요 진짜 전문가라서 전문 인력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실무자가 6개 사업단을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니까 약간은 실무자 역할을 보조한다라는 그런 역할 보장의 느낌을 실 전문 인력으로 쓸 때도 있어요 약간 리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실무자1)

본 사업단은 평창지역에서 운영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축이 된 사업단인 만큼, 지역적·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이는 센터 운영계획 목표와도 연결될 것이다. 사업단의 특성상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이 주요목표이겠지만, 도내 자활사업,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차원의 목표 설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서비스업인 만큼 차별화된 메뉴나 서비스 전략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쫄 어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그거 먹고 나가면서 쫄 후식 개념으로 뭐가 이렇게 나갈 때 뭐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특색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재방문이 있고 이게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가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은 그냥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잖아요 뭐 이게 자활센터 업소든 그냥 일반 개인 사람이 하는 거든 한국인이 하는 거든 여성결혼이민자가 하는 거든 전혀 특색이 없어 보여서(연구자)

그 평창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거나 아니면 여성결혼이민자 특색을 좀 살려서 그리고 베트남 분들이 먹는 뭐 간식 같은 거라도 있잖아요 그럼 뭐 나가실 때 후식개

념으로 뭐 입가심용으로(연구자)

서비스업의 특성상 이미지 메이킹 같은 교육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여자에 따라 출신국, 거주기간, 나이, 성향 등의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 노동시장과 서비스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자활사업의 다른 참여자들과는 차별화된 교육과 사례관리 목표설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참여자1의 경우, 서비스업에 종사할 경우 외모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몸부터 발끝까지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해서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거는 누군가가 조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센터에서도 그니까 목적 그 운영계획하게 되면 뭐 1차년도 목적에 어 서비스 업종에 맞게끔 그리고 나중에 뭐 3~4년 후에 독립해서 본인이 할려면 단독적으로 해야 되면 그런 거부터 싹 교육을 시켜가주구 좀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연구자)

네 아마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어쨌든 참여적인 교육을 고려하진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미지 메이킹이든 신메뉴 개발 교육이든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접목이 되실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운영이죠 운영 네 그게 창업보단 운영할 때 (실무자1)

좋아하는 건 아니고 조금 좀 내 몸 내가 좀 신경 써요 좋아하는 다 좀 이쁜 거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제가 조금 신경 써요(참여자1)

저도 여기는 여기는 그렇고 또 식당 다닐 때도 머리도 다 묶어야 되고 옷이도 단정하게 뭐 해야 되고(참여자1)

앞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시, 참여자 개인 및 집단의 특성과 도내 시·군의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단 구축에 많은 시간과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지만, 이의 정착과 유지를 위해서는 초기기획 단계에서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바. 사업 안정 및 확대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준비 필요

개념	하위범주	핵심주제
3년간의 사업단 운영 기간 동안 인큐베이팅을 통해 자활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함, 대상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청년 자립도전사업단으로 공모를 할 수 있음	자활근로 사업단 확대 계획	사업 안정 및 확대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지자체 시책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 진행이 용이해짐, 장기적 관	연계 협력의	

점에서 센터 간의 연계는 계속적으로 필요함, 앞으로 자활사업 분야에서도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강원도 시군 상황을 반영해서 단독 혹은 연계 협업사업 진행이 결정되어야 함	중요성	준비 필요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이에 대한 연계와 홍보가 잘 되면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임,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나온 후 홍보하도록 함,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원도 여성 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이 있었으면 함	홍보와 장기적 계획 설정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한국말과 사람들의 차별임, 식당에서 일할 때 반말하거나 비교하는 사람들이 싫음	인식개선 필요성	

1)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계획

본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출범을 위해 광역자활센터를 통한 창업비 지원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무이자 융자, 지역자활센터의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앞으로 본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육성될 때까지 인큐베이팅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지금 평창지역자활센터에서도 이 사업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운영 뭐 운영이든 승인이든 사업계획서든 그런 것들을 수립을 하셨구요 강원광역자활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시책 사업으로 받았던 그 자원 중에 1,000만원을 창업비로 드리고 관련해서 뭐 보증 임차보증금을 강원드림뱅크에서 무이자 융자를 이제 하는 결과구요 만약에 내년부터 이제 경영을 하게 되면 뭐 그게 교육이 됐든 매출 향상을 위한 경영지원이 됐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도 여성결혼이민자 시범사업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기업 육성할 때까지 계속 지속해서 인큐베이팅하는 걸로 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실무자1)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 중 20~30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후 보건지부가 운영하는 ‘청년 자립도전 자활사업단’에 대한 공모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단의 확대를 도모해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 사업단을 포함하여 관련 사업단 구축에 대한 내용이 도 시책으로 선정·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되었다.

내국인들은 50대 중반이 많이 오지만 다문화 분들은 젊은 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 사실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 다문화 청년으로 올리면 제가 보기엔 거의 8

90% 선정될 거예요 그 자체가 차별성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로 아예 그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에서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지도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해줘요 아예 그럼 이 다문화청년(실무자1)
이 시책이 비예산 시책으로 들어갔어요 예산이 있는 시책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활기금은 도정 예산으로 안 집어넣거든요 그니까 그니까 비예산으로 시책에 올리는데 시책에 올라갔으니까 기금 달라고 한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올라간 시책의 경우에도 자활 같은 경우에는 시책으로만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기금도 있고(실무자1)

현재 광역자활센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 발굴과 사업단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내 자활사업의 확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역할수행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계협력의 중요성

본 사업단 구축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대상자 확보와 센터 간의 역할설정이었다. 초기 기획과정에서는 자활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연계하면서, 두 센터가 참여자들의 욕구와 필요도를 토대로 사업 아이템을 확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진행과정에서 연계/협업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기존 사업 영역, 지역 내 기관 및 실무자 간의 관계 등과 연결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존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이 소개해준 지인들을 토대로 참여자 발굴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저희가 다 다문화예요 다문화도 인맥이 있어 알거든요 이 구조를 다문화 자기네들끼리 그니까 제가 발굴한 거는 다문화(실무자2)
하다 보니까 뭐 한 두 명 왔는데 워낙 부자인 사람도 있으니까 어 이거 안 되겠다 저희 같이 일하시는 다문화 분한테서 니들 아니까 좀 델꼬 와봐라 해서 처음에 여서 일곱 명까지도 오고 막 그랬는데 한 두 명 안 온다 그러더니 다섯 분 정도 되는데 발굴을 그렇게 하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실무자2)

하지만 앞으로 본 사업단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와의 연계/협업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자의 탈락/발굴과 사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가 알기로도 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도 없지만 협조체계가 가점으로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지표 개선 중이거든요 그니까 전반적으로 복지부 사업이 다 협조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전 난리에요(실무자1)

지금은 여성결혼이민자 5명만으로 세팅을 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지역 자활에 자활 사업의 목적이 이분들을 계속 그곳에 두는 게 아니라 요기서 보육하고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신규 대상자가 필요할 거고 그 여성결혼이민자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일 다문화가족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다문화센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연계체계나 협조체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연구자)

물론 도내 시군의 지역적 상황과 관련 센터 설치여부와 운영체제(직영/법인) 등에 차이가 있기에, 타 시군에서 관련 센터 간에 연계/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상황도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이게 ○○에서 하신다 그러면 자체 발굴하고 다문화 조연 받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자체 발굴하시고(실무자2)

18개 시군이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연동이 가능한 곳이 있구 다문화나 지역 자활 뭐 새일도 그렇고 다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맞는 거긴 하지만 강원도 같이 인적이나 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곳에서는 단독 사업은 장기적으로 단독 사업은 뭐 해답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연구자)

물론 다른 시군에 적용할 때 모습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역 여건이 다 틀리고 뭐 시군청의 입장도 틀리고 지역자활센터 다문화센터 각각의 입장이 틀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대상자 분들의 입장도 다 다른 거고 여건도 다른 거긴 하지만 근데 첫 사례가 잘 나와야지(연구자)

실제 현장에서 사업 진행 시, 연계/협력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안정적 지속 및 확대를 고려했을 때, 연계/협력은 필수적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3) 홍보와 장기적 계획 설정

앞으로 본 사업단의 구축·운영을 계기로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평창 사업단이 1호점이고, 내년부터 타 시·군에 여성결혼이민자 사업단이 출범하게 된다면, 그것을 2호점으로 지정하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홍보 시에는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일반 영리업체처럼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평창군의 사례가 중요한 게 강원도에 여성결혼이민자 사업단이 만들어졌다는 걸 조금 이슈화해서 홍보해서 다른 쪽으로도 파급을 하고 싶은 거예요(연구자)
다른 곳에서도 만약에 여성결혼이민자 사업단이 생긴다 좀 각 다른 양식이겠지만 생긴다고 하면 이걸 묶어서 같이 강원도형 여성결혼이민자 사업단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렇게 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생각해봤을 때 홍보 마케팅도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연구자)
언론보도를 하고 또 좀 블로그에도 퍼 담고 이런 거를 그 시식 시식 체험단 이런 거해서 해가지구 그런 것도 하잖아요 가서 그 시식한 사람들 해가지구 찍어 가지구 올려달라(연구자)
SNS 컨설팅이 이제 SNS 마케팅을 위탁용역을 해서 SNS 컨설팅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위탁을 드린 게 있는데 그 비용이 △△을 하고 다른 곳을 하나 더 해도 되는 예산이라서 그걸 저기다 해줘도 돼요 SNS 컨설팅을(실무자1)

더불어 본 사업단 관련해서 2019년 운영계획이 확정되면, 지역 언론에 보도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이슈화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이때 지자체 지원을 통해 사업단 출범 내용과 참여자 인터뷰 등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아무것도 뭐 교육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홍보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사업단이 나온 거고 19년도 20년도에는 뭐 이런 교육에 대한 결함 이런 사례관리에 대한 결함 혹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는 뭐 21년 지나면 다문화여성 이주여성분들로만 구성된 사회적 기업으로도 육성할 수 있는 혹은 협동조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려면 그냥 차라리 운영계획을 같이 협의하고 그걸 보도문에 담는 게 낫죠 물론 이제 하다보면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약속할 수 있는 기대상 정도는 운영계획 수준이지 않을까 지금(실무자1)

흔히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수동적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하지만 관련 사업이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사업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 시기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로의 변화모색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인식개선 필요성

앞으로 본 사업단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사업단 운영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사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단 안에 자활사업으로 운영되고,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체라는 점 등을 명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다 사람이예요 성격은 다 비슷해요 비교하면 안 되죠 근데 식당에 일하다 보니까 비교하는 사람 많아요(참여자3)

제가 외국인 알잖아요 얼굴 보면 저의 얘기하고 사장님 불러서 사장님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왜 왜 외국인 서빙해요 한 한국말도 모르고 못 알아듣고(참여자3)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하면 그 손님이 혼내서 사장님이 또 혼내고 근데 사실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니고(참여자3)

한국말하고 우리 일해요. 여기 외국 사람하고 한국사람 우리 전에 김치공장 한국 사람하고 외국사람 같이 일해요. 근데 한국사람 잘못했어요. 우린 잘못할 수 없어. 김장 여기는 다 외국사람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분 나빠요. 아니 누구 잘못했으면 누구 이야기해요 그럼 왜 우리 다 외국인들(참여자4)

본 사업단은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작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본 사업단 구축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점검된다면, 도내 타 시·군 사업단 출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방안

1.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현황
2. 제언

IV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방안

1.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현황

본 연구는 2016년 본원에서 진행되었던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증진 관련 연구의 제안 내용이었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에 대해, 행정부서에서 자활사업과의 연계/협력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수행이 결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사업실행 지역 선정이었다. 연구원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역자활센터에서는 지역자활센터로 사업 수행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을 탐색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삼척시와 평창군이 사업실행 가능지역으로 논의되었다. 그 후 관련 현황 조사 및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참여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예측된 평창지역이 최종적으로 사업수행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사업 아이템 관련해서는 본 사업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쌀국수 음식 관련 프랜차이즈 도입이 고려되었다. 이는 사업설계과정과 대상자의 특성(베트남 출신 다수)을 고려한 결과, 프랜차이즈 도입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긍정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축이 된 사업단으로서의 특색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다른 자활대상자에 비해 청장년층이 많고, 근로의지와 욕구가 많은 편이다. 특히 쌀국수 관련 아이템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스스로 재료 구입과 음식 만들기가 가능한 업종이다. 자활사업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사업 참여과정에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생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사업 아이템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것은 센터의 운영계획의 목표와도 연결될 것이다. 사업단의 특성상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이 주요목표이겠지만, 도내 자활사업과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차원의 목표설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시, 참여자 개인 및 집단의 특성과 도내 시군의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 계획수립이 요구된다.

본 사업단 구축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대상자 확보와 센터 간의 역할설정이었다. 초기 기획과정에서는 자활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연계하면서, 두 센터가 참여자들의 욕구와 필요도를 토대로 사업 아이템을 확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실제 진행과정에서 연계/협업이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기존 사업 영역, 지역 내 기관 및 실무자 간의 관계 등과 연결되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앞으로 본 사업단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사업 진행 시, 연계/협력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대상자와 센터 사업의 안정적 지속 및 확대를 고려했을 때, 연계/협력은 필수적인 사안일 것이다. 또한 도내 자활사업의 확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광역센터와 지역센터 간의 역할수행과 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현황 관련해서, 참여자들은 한국 입국 후 다양한 교육들을 받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을 기본으로 부부교육, 다문화강사양성 교육 등의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금제도 관련 교육 등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들이 이들의 한국생활 정착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입국 년 수에 비해 한국어가 매우 미숙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인적자원이 취약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능력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존에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주말 아르바이트 포함)와 일반 식당 등에서 일한 경우 모두 희망소득 정도, 혹은 더 많은 소득을 가졌다. 더불어 참여자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만큼, 자립적인 소비를 하고 있었다. 흔히 한국남편이 여성결혼이민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한다고 생각되지만, 참여자들은 경제활동과 소비에서 모두 자립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활동 및 개인적 삶에 대한 계획은 매우 모호한 상황이었다. 자영업에 대한 욕구를 가졌지만, 무엇을 할지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유는 자녀양육 혹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담감 등이었다. 이로 인해 자활사업의 일주일에 5일,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근무조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흔히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들의 낮은 인적자본을 토대로 질 낮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근무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제 이들의 희망 근로조건이 일반 사람들의 희망 근로조건과 많이 다르지 않았다.

본 사업단은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작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볼 수 있을 것이며, 본 사업단 구축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점검된다면, 도내 타 시군 사업단 출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제언

가. 제도적 측면 : 연계/협력 체계 구축

1) (사전) 관련 센터들 간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가정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관련 센터들 간의 연계/협업체계 구축이다. 현재 정부정책상 주로 다문화가족 취업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새일센터-고용센터 간의 연계/협력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센터들 간에도 연계/협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가 새롭게 추가되는 것인 만큼,

보다 더 구체적인 역할 배분과 기존 센터들과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수행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상자 중심,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센터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연계/협력체계 구축 시, 대상자 발굴/관리, 예산 확보 및 아이템 개발, 취업기초소양교육과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자활 사례관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교육 등과 관련해서, 센터 간 역할과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 설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실제성 부여를 위해서는 ‘실적’ 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공고화’ 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사업 시작 전 혹은 초기 단계에서 MOU 체결(지역자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 및 시군 관련 부서)을 통한 협력기반 조성이 필수이다.

<연계/협력 시, 역할(예시 안)>

지역 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U 체결 -사업계획서 작성(지역자활센터 관련) -사업단 운영(기획 및 인력관리) -대상자 발굴/관리(두 센터 간, 공유 및 회의) -예산 확보 -사업 아이템 개발(지역자활센터가 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견 제시) -자활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MOU 체결 -사업계획서 작성(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대상자 발굴/관리(두 센터 간, 공유 및 회의) -취업기초소양교육과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교육 -한국어교육 연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원체계 연계
새일센터	<p>(지역 센터 설치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교육 진행 <p>(해당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기초소양교육만 진행)</p>
광역 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단 선정 및 지원 -사업단 운영 지원(기획 및 회의진행 등)

도 및 시군	-사업 지원(예산 및 대상자 판별 등) -사업단 운영 지원(공간/연계 자원 발굴 등) -자활기금 활용 검토 -MOU 체결 참여 및 지원
여성결혼 이민자	-사업단 참여 -관련 교육 참여

2) (사전) 도 및 시·군 시책화와 예산 확보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때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도를 바탕으로 강원도 및 시·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단 진행을 위한 인건비, 창업비, 임대료 등에 대한 예산확보와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강원도와 시군의 자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나. 관리체계 측면 : 지자체 역할 강화

1) (사전) 유관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관리 역할 수행

지자체가 기관 간의 역할조정 및 관리업무를 적극적/협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자활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소득조사를 통한 자활사업 대상자 판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선행해서 관-관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관련해서, 지역자활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의 민-민 협력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정책상 두 센터 간의 연계가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두 기관의 업무를 조정/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행정조직 내의 연계는 예산 확보 및 사용, 사업 홍보, 대상자 발굴, 자원 조정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 서비스 운영 측면 : 실질적인 사업 참여 방안

1) (사전) 자활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 리플릿 제작 및 설명회 개최

사업 참여자 확보를 위해 수급자 외 차상위계층 여성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방법으로는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중국·베트남·일본·영어 번역) 및 설명회 개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사업단 참여 제고를 위해서는 자활급여 및 근로조건, 자산형성지원사업과의 연동, 부가혜택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자활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어 및 체계가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의 이해도와 인지도도 낮은 편이다. 그런 만큼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관련 사업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때 이들의 경제활동에 지원자이며, 조력자인 가족들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전) 여성결혼이민자 특성을 고려한 사업 아이템 고려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특성과 강점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사업단의 구축과 운영과정의 용이함을 고려한 사업 아이템 선정도 중요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는 청장년층이 대부분이고 근로의지와 욕구가 타 자활참여자들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정부분 프랜차이즈 도입의 적정성, 장/단점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참여자의 특성, 지역적 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업의 수행주체인 기관 및 실무자의 특성 등을 토대로 한 현실적인 계획과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사전, 과정) Gateway 과정 운영 및 목표설정에 따른 개입 필수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시, 게이트웨이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사전단계에서 이들의 욕구와 적성 및 능력, 개인/가족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과 계획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사업단 진행 전 게이트웨이 과정을 통해 1차적으로 개인별 자립경로(IAP)와 자활지원계획(ISP)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단 참여과정에서 실제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 설정 시, 정서 및 사회적 자활¹³⁾ 등이 적절하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한

13) 정서적 자활(참여주인의 역량강화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일에 대한 태도, 독립에 대한 의지, 자존감 증진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변화), 사회적 자활(사회적 관계의 회복이나 공동체를 강조)

다. 정서 및 사회적 자활 관련 프로그램 진행과 사례관리 시에는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존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던 사례관리에 해당영역(부족한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 등) 관련해서, 타 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문화원 등)¹⁴⁾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연동시킬 수 있다면, 기관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화, 참여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혜택 수혜가 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 노동시장 이해도 제고 및 취업 태도 향상 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업무를 하게 되면, 자활사업은 이들에게 ‘그냥 일한다’고 인지될 수 있다. 이때 게이트웨이 과정 운영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미래설계, 세부계획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과의 연동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운영 방식은 경제적 측면에 대한 교육과 설계는 지역자활센터가 담당하고, 개인/가족적 측면에 대한 교육과 설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업단 진행과정에서 한국어교육과 참여자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역량강화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한국어실력(읽기·쓰기·듣기·말하기)이 필수적으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4) (사전, 과정) 생애주기를 고려한 근로시간 조정 및 배치

대다수가 청장년층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했을 때, 이들은 영유아 및 아동기 자녀양육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를 고려한 근로시간 조정 및 배치가 필요한데, 이들보다 연령층이 높은 한국 사람들과의 근로 시, 시간 조정 및 배치가 보다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 한국 사람들의 연령은 여성결혼이민자보다 높다. 또한 시간제 근로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자녀양육이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제 근로의 가능성은 참여자 확보와 이들의 만족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4)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모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임.

5) (과정) 한국 사람과 협업체계 구축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시,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 사람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 한국 사람이 전문 인력만으로 배치될지, 전문 인력과 사업단 참여자로 모두 배치될지에 대해서는 사업 아이템과 지역/센터의 일반 참여자 특성, 사업단 참여가 확정된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업단 내의 역할 구성과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일정부분 사업수행 주체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 전문 인력으로 채용되고, 참여자들이 맡게 되는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역량제고가 가능한 방향으로 역할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

6) (과정) 사업 진행 시, 홍보 등을 통한 인식제고 및 파급력 강화

사업단 진행 시 언론 및 SNS 활용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아직까지 한국사회에는 ‘외국인,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다수 존재하며, 자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기존 이미지와 사업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미지 개선과 사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7) (사후) 자활근로사업단 확대 및 사후단계에 대한 계획 수립

사업단 출범 후에는 계획된 기간(3년) 후, 이에 대한 확대 및 자활기업 전환 등에 대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연차별 점검을 통해 목표치를 수정하고, 적절한 여건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 지속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예측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 확대시기에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도(2018). 『2018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 강원도광역자활센터(2016). 『2016년 강원도 자활사업현황 보고서』.
- 관계부처합동(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2018~2020)(안)』.
- 관계부처합동(2018).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 김복태·이승현(2015).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자활사업 안내(1)』.
- 송민경(2016).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증진 방안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회.
- 엄태영(2013). “한국 자활사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조망”.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36, pp357-386.
- 이남철·정지선(2014). 『다문화가족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지원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문국·박미라·김진광(2017). 『2017년 강원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보고서: 참여자 감소 원인과 자립역량진단을 중심으로』. 강원도광역자활센터.
- 유인진·송영호(2009).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활모델로서의 창업: ‘시민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4(1), pp25-44.
- 여성가족부(2018).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8).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2018). 『2018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 이문국·박호준(2018). “충남형 자활 시범사업의 단기효과성 검증: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자활과 복지』, 6호, pp65-90.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8). 『2017 가족지원사업 연간실적보고서』.
- 행정자치부(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행정자치부(2017). 『주민등록인구현황』.
- 강원도(2018). 『강원도 자활사업(내부자료)』.
- 국가통계포털(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http://www.ssis.or.kr>
- 국가통계포털(2018). 「인구동향조사」. <http://www.ssis.or.kr>

강원도(2018). 『2017 강원통계연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8). <http://ssis.or.kr>

부록

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면접조사 질문지

여성결혼이민자 심층면접 질문지

<인구사회학적 특성>

- 거주 지역, 나이, 본국 및 국적 취득여부, 학력, 경제적 상황 등
- 가족적 배경 및 현재 동거 가족 형태 등

<본국 경험 및 한국 생활 적응 상황>

- 본국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기간, 동기 등)
- 본국에서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 한국 입국 계기 및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한국생활에 가졌던 이미지가 있었습니까?
입국 후 가졌던 이미지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현재 삶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의 정착 상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의 취업경험>

- 한국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기간, 동기 및 취업경로, 급여 등)
-취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했습니까?
-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취업에 대한 가족 및 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취업 후, 본인 삶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일한 경험이 있다면, 그 후 부부 간의 역할수행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노동, 가사, 교육, 대화 여부 등)
- 한국 입국 후,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생활 초기와 현재 하고 싶은 일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취업을 결정했을 때, 생각하셨던 삶의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현재 수입 및 경제상황은 어떠합니까?(본인, 배우자, 동거가족 포함)

<시범자활근로사업단 참여 계기 및 과정>

- 자활사업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자활사업 참여 전, 가졌던 이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활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자활사업 참여 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 구직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근로시간 및 조건 등이 있습니까?
- 자활사업 참여 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 지역사회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적합한 직종/창업아이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서비스 경험 및 요구도 관련>

- 한국 입국 후, 참여했던 교육이나 받았던 서비스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가능성은 어떠합니까?
- 한국에서 취득한 취업관련 자격증이 있습니까?
- 현재 취업 정책 및 서비스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행되었으면 하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까?
- 한국 생활에서 도움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기타>

- 평소 본인의 성격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십니까?(자국 친구 및 친지 등)
- 예비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그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앞으로 한국 생활이 어떠할 것 같으십니까?

연구보고서 2018-08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자활근로사업단 구축 방안

2018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박기남

발행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주소/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석사동)

전화/(033) 248-6300 (대)

팩스/(033) 248-6305 (대)

<http://gwfri.gwd.go.kr>

보고서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착오가 발견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72-6420607-000099-01

ISBN 9791187764212 93330

